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79.20	↑ 코스닥	802.20
	(-16.49)		(+4.81)
↓ 금리 (미국 9년)	3.264	↑ 환율	1310.10
	(-0.151)		(+7.90)

[경제종합]
美 FOMC 임박
불안정한 금융시장
금리 예측불허
03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몸집 ↑ 新기술 고급화 VS 가성비로 경쟁력 확보

국내 車업계 마케팅 양극화

현대차·기아

차체 더 키우고 실내공간 확보

미래첨단기술 탑재로 가격도 ↑

한국지엠·르노코리아

기존모델 편의기능 대폭 개선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 높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기아는 차체를 키우고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성비 모델이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총 12만 5151대를 기록했다. 이 중 현대차와 기아는 11만 5031대를 판매하며 내수 점유율 91.9%를 기록했다. 나머지 3사의 점유율은 8.1%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내수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차·기아는 최근 차량 크기를 키우며 실내 공간성을 확보함과 동

시에 첨단 기능을 선보이며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출시한 현대차 코나의 전장은 1세대보다 145mm 늘어난 4350mm, 축간거리는 60mm 길어진 2660mm로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기아 셀토스도 전장은 40mm 짧지만 축간거리는 30mm 늘어나며 실내 공간을 넓혔다.

기아가 지난해 출시한 소형 SUV ‘디올 뉴 니로’도 차체를 더 키웠다. 니로의 전장은 4420mm로 기존 모델보다 65mm 늘었다. 축간 거리와 전폭은 각각 20mm 늘어난 2720mm, 1825mm다. 전기차인 디올 뉴 니로 EV는 축간 거리(2720mm)와 전폭(1825mm)이 1세대 모델과 같지만 전장은 4420mm로 종전대비 45mm 더 길어졌다. 이 외에도 지난해 출시된 현대차 신형 그랜저의 경우 이전 보다 전장은 45mm 길어진 5035mm로 5m를 넘겼다. 중형 SUV와 다른 세단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처럼 현대차·기아의 신형 모델들이 차체 확대와 함께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반면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 등은 첨단 기술 도입은 물론 가격 인상율을 최소화 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우선 한국지엠은 이달 출시하는 첫 번째 크로스오버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로 승부수를 띄운다. 빠르게



천안함 46용사, 잊지 않겠습니다

서해수호의 날을 나흘 앞둔 20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박동혁함 등 유도탄고속함(PKG) 승조원들이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한 후 경례하고 있다.

/뉴스1

상승하고 있는 소형 SUV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인기 소형 SUV는 현대차 코나와 기아 셀토스 등이 있다. 하지만 코나의 경우 1.6가솔린 터보 모델의 기본트림은 2537만원이다. 셀토스의 경우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기본트림이 2160만원이다.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 3000만원에 육박한다.

반면 한국지엠의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한국보다 먼저 출시가 예정된 미국 시장에서 공개된 가격과 비교하면 내수 시장서 2000만원 초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글을 통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격을 검색하면 기본가격 2052만원으로 표시됐다.

만약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2052만원으로 출시될 경우 국내 판매중인 소형 SUV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형성

하게 된다.

르노코리아는 신차출시보다 기존 모델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르노코리아의 효자 모델인 QM6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성비(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 모델로 주목받으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QM6의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QM6’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더 뉴 QM6는 외관 디자인 변화와 내장 편의 기능을 개선했다. 특히 기존 가솔린 QM6 GDe와 LPG QM6 LPe에 뒷좌석을 적재공간으로 만든 QM6 퀵스트를 추가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더 뉴 QM6는 새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하고, 범퍼와 전후면 스킴에도 새로운 디자인을 반영했다. 헤드램프는 수직(버티컬) 디자인의 LE

D 주간주행등을 적용했다. 18인치, 19인치 휠에도 디자인 변화를 줬다. 실내에는 친환경 올리브 그린 나파 가죽시트를 추가했다. 하지만 가격은 소형 SUV 가격과 비슷하다. 더 뉴 QM6 가격은 2.0 GDe LE 2860만~3715만원, 2.0 LPe 2910만~3765만원이다. QM6 퀵스트는 2680만~3220만원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첨단 기능을 적용한 모델이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들 자동차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어 내수 시장의 소비 트렌드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대차·기아의 차량 출고 대기 시간이 줄어든 것도 이같은 영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대재해처벌법, ‘예방법’ 전환 탄력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중심 보완

고용부,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정부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사후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 개정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제작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예방 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 달 처음 ‘위험성 평가’ 중심의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 자율로 파악하고, 부상·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는지, 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했는지 여부다. 또,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전파했는지 등도 기준이 된다.

다수의 중대재해 사고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

만,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자체 위험성 평가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에도 빠져 있다.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롯데 탈락 이변

신라·신세계 ‘복수사업자’로 선정 관세청 특허심사 거쳐 4월말 결정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1라운드 종료됐다.

유력한 후보였던 면세업계 1위 기업 롯데면세점과 최고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됐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 FG)이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마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최종 사업자는 관세청이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해 특허심사를 거쳐 4월말 결 결정된다.

대기업 사업권인 DF1·2는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DF3·4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는 부티크를 취급한다.

DF1~4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DF5는 신세계·현대백화점·신라면세점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DF1~2는 신라면세점, DF3~5는 신세계면세점이 가장 높은 가격을 냈다. 5개 구역 모두 최저입찰가 대비 최대 170%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중견 사업권인 DF8·9에서는 경북공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면세사업자 선정 결과에 업계의 반응은 “이번의 연속”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1위 면세기업인 롯데가 탈락했고, 강력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외국 기업이 떨어진 탓이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대외 금융불안 모니터링 강화… 리스크에 즉시 조치”
▲대통령실 “60시간,尹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 그 이상도 가능” /사진 뉴스1

▲ 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우려에 “연차 충분히 보장돼야”
▲ 대통령실 “독도·위안부 논의안돼… 수산물 문제는 공개 못해”



▲與 “尹대통령이日하수인? 헛소리… 이재명이 조폭·범죄 하수인” /사진 뉴스1
▲李 기소 임박… ‘당헌 80조’ 논란 재점화될 듯

롯데免, 예상수익 낮게 잡았나… ‘최저가 입찰’로 자리 뺏겨

>> 1면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서 계속

국내 면세점업계 순위변동 가능성
세계 1위 면세기업 CDFG도 탈락

유통기업 두곳 면세사업 탈락에
인천공항 면세구역 수익성 경고

롯데면세점은 전 구역에서 탈락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개항 이래 처음으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1·2권역과 5구역에 응찰했으나 모두 최저가를 제시했으며, 최고가 사업자 대비 30~40% 가량 입찰가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DF5 권역은 동일사업자 중복금지 조항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를 제치고 현대백화점면세점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DF5 또한 입찰가에 따라 선정함으로써 기회를 얻지 못했다.

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한 권역씩 차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월등하게 높은 금액을 써내 DF1~5까지 전 구역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지하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경쟁 없이 운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통상 공항면세점은 전체 면세점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면세업계 순위 변동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첫 해외 진출지로 인천공항을 낙점하고 만반을 기했던 CDFG의 입찰 실패

도 이번으로 꺾인다. CDFG는 지난 2021년 매출 93억6900만유로(약 13조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세계 1위 면세점기업으로, 여유 자금을 토대로 최고가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예상치를 하회한 입찰가로 탈락했다. CDFG가 제시한 입찰가는 최저가 대비 130~1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유통 기업 두 곳이 떨어지면서 인천공항 면세구역의 수익성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최저가 대비 170%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수익이 확보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15년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4개 구역에 특허를 낙찰 받았다. 2017년 중국 사드 보복 이후 수익성이 크게 악화해 인천공항 측이 면세점 임대료를 30% 인하했음에도 2018년 2월 3개 구역을 반납했다. 당시 지불한 위약금은 3000억원 수

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선정결과를 향후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수익성을 두고 각 사별 전망이 엇갈린 증거로 지목한다. 입찰에 뛰어들 모든 기업들이 입찰가를 두고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최적가로 썼다”고 밝힌 탓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팬데믹 사태 직전 해이자 개항 이래 최대 입국자수를 기록한 2019년 24억3000만달러(약 3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여객 수 변동이 컸던 것을 생각하면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겠지만, 최근 국내 방한 외국인의 수 증가세와 한류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고려하면 낙관론도 충분히 나올 법하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1면 ‘중대재해처벌법’서 계속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처벌법 넘어 산업법도 위험성평가 중심 재 정비”

가이드북에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안전 수칙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처벌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령 보완 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처벌법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여러 규칙을 이번 기회에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령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통합 포털도 구축될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재 50개 이상 안전보건 관련 사이트를 통합해 오는 2026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안중주 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관련 정보와 민원, 서비스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산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56억 달러 ‘역대최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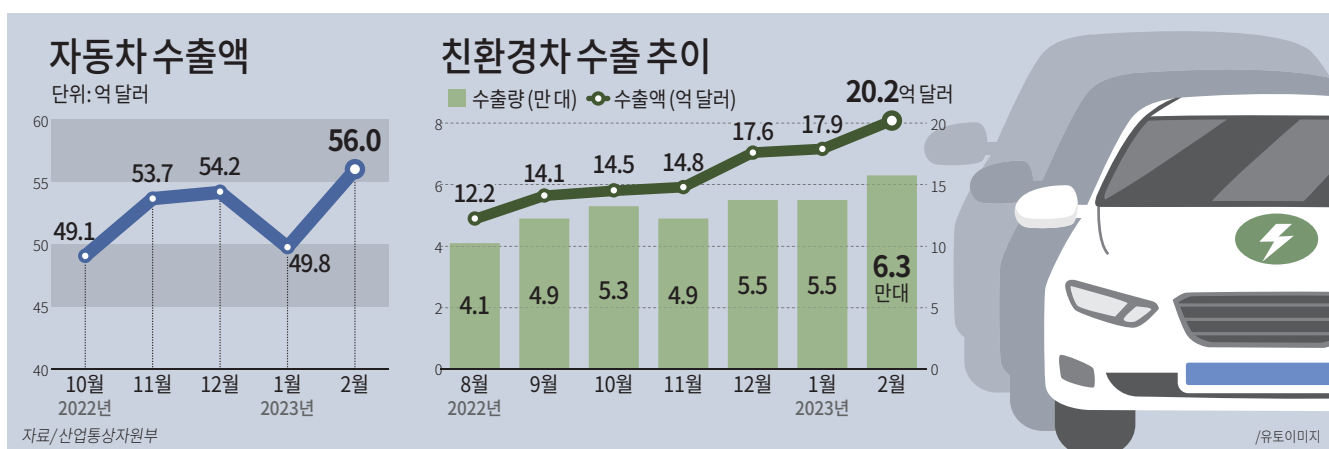
산업부, 총 22.3만대 34.8% 증가
수출 1위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친환경차 수출량 61.6% ↑ 6.3만대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56억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와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며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4.8% 증가한 22만3000대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56.0억달러로 월간기준 역대 최고로, 지난해 12월 기록을 두 달 만에 다시 경신했다.

수출액 증가는 수출물량 증가와 함께 수출단가가 높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 중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쌍용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 2019년 5월(22.5만대) 이후 45개월 만에 최고치다. 르노코리아는 주력 차종인 XM3



(아르카나) 수출저조로 수출량이 줄었다.

승용차 수출 1위는 한국지엠의 트레일블레이저(1만8376대)가 차지했다. 이어 아반떼(1만7347대), 코나(1만5520대), 모닝(1만3594대), 니로(1만2600대)가 수출 상위 5개 모델이다.

기아는 니로(1만2600대), 스포티지(1만1311대) 등 인기 SUV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57.9% 증가한 9만5568대를 수출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7095대), 아이오닉6(5433대) 등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며 34.8% 증가한 9만4459대를 수출했다.

친환경차(승용기준)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61.6% 증가한 6만3000대,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83.4% 증가한 20억2000만달러를 기록, 월간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넘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며 자동차 총 수출액의 36.1%를 차지한다. 친환경차 연료별로는 전기·수소차가 12억1000만달러로 가장 많고, 하이브리드 5억7000만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억7000만달러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북미와 유럽 연합(EU) 등 주력시장 수출 증가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13.3% 증가한 20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북

미(7.21억달러), 아시아(4.89억달러), EU(3.87억달러), 중남미(2.3억달러), 중동(7800만달러), 오세아니아(1100만달러) 순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30.2% 증가한 34만4000대, 내수 판매는 대기수요를 바탕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19.6% 증가한 14만7000대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 중 국산차는 전년동월 대비 21.5% 증가한 12만5000대, 수입차는 BMW, 아우디 등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9.9% 증가한 2만2000대가 판매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UBS, 4.2조에 크레디트스위 인수

SNB “스위스 경제 보호 해결책 찾아”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했다. 인수가는 30억 스위스 프랑(약 32억3000만달러, 한화 약 4조2374억원)이다.

19일(현지 시각)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최대 은행 UBS와 CS의 합병을 공식화했다.

SNB는 “예외적 상황 속 스위스 경제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

기 위해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며 “이는 스위스 연방 정부와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과 SNB의 지원에 따라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SNB는 인수지원을 위해 USB에 1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SNB는 “실질적인 유동성 제공을 통해 두 은행 모두 필요한 유동성에 접근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총액은 30억 스위스프랑, 32억3000만 달러로, CS의 모든 주주는



/크레디트스위스

22.48주당 UBS 1주를 받게 된다. 지난 17일 종가 기준 CS의 주당 가격은 1.86 스위스 프랑이었다. 이를 달러로 전환한 시가 총액은 약 80억 달러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CS의 경우 세계 9대 투자은행(IB) 중 하나로 파산 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대한 충격을 던질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스위스 당국의 유동성 지원 발표를 환영했고, 영란은행(BOE)도 UBS의 CS 인수를 지지한다면서 동시에 영국 은행 시스템 역시 건전한 상태로 자본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VB·CS 사태 등 시장 불안정... 금리 ‘인상·동결’ 예측불허

美 FOMC 임박

유동성 위기 사태 잇달아 발생
가파른 금리인상 부작용 확인
시장선 베이비스텝 전망 우세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동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오는 21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3월 FOMC를 연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기준금리)는 4.50~4.75%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과월 의장은 지난 7~8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청문회에서 “물가상승률을 연준의 목표 수준(2%)으로 내리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강한 경제 지표는 최종 금리 수준이 기존 전망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는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p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6%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이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은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빅스텝’이었다.

하지만 최근 SVB, CS, 실버게이트은행, 시그니처은행 등 세계 금융시장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방향에 적신호가 켜졌다.

SVB의 모기업 SVB파이낸셜그룹은 지난 17일 미국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SVB파이낸셜그룹의 보유자산

은 272조원으로 2008년 워싱턴뮤추얼 이후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금융기관 중 역대 2번째 규모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최소 SVB를 두 사업 부문으로 분할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2위 은행은 CS도 유동성 위

기가 확산되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70조원의 유동성을 지원받은 뒤에도 우려가 여전하자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고, 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30억 스위스프랑(약 32억 달러·4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또한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예고대로 기준 금리를 3%에서 3.5%로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과월 의장의 섣범이 복잡해지고 있다.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잇다른 파산과 유동성 위기를 가져와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위기가 빠르게 전이돼 금융권 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질 수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하기 때문에 긴축 고삐를 더 당길 수도 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대까지 내려오며 전망치에 부합했

지만 작년 6월(9.1%) 금리 인상 출발 시점에 비해 하락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연준이 제시한 물가 목표치는 2%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시장안정을 위한 동결을 선택할 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인상을 선택할 지 주목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기조가 3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 균열 조짐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25bp(0.25%p)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실수로 간주된다”며 “금리를 추가로 올린 시점에서 경기침체 리스크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나유리 기자

“미분양사태 이제부터 시작 배드뱅크 통해 先대응해야”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세미나
한은 홍경식 국장, 배드뱅크 설치 강조
기금조성 관련해 예보 대여 등 의견도

“미분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분양이 늘면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건설업자의 부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연체율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재 스트레스테스트는 모든 금융기관이 만족하는 수준이다.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부터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심화될 경우부동산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696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이 중 부동산 PF 의

스포저는 163조4000억원으로 PF대출잔액이 116조6000억원, PF유동화증권잔액이 46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다.

홍 국장은 “은행권은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려되지 않지만 여신전문회사, 보험사의 PF대출이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 부진이 악화될수록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 대규모 부실에 대비해 PF 배드뱅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에서 PF관련 부실자산과 채권을 인수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날 배드뱅크 기금조성 방안과 관련해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 외에도 예금보험기금을 대여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약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용기를 내게 하고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게 하며
새로운 일상을 열어 주기도 하죠

DB손해보험은 약속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더 든든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中 경기부양책 ‘나홀로’ 유동성 풀기… “긴축 리스크 더 커”

● 차이나 뉴스&리포트

3개월새 지급준비율 0.25%P ↓
LPR 1년만기 3.65%, 5년만기 4.30%
기준금리 7개월 연속 동결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나홀로’ 유동성 풀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는 동결했지만 지급준비율은 재차 인하하면서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두고 선진국의 급격한 긴축이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됐다고 경고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실질 기준금리인 3월 LPR을 1년 만기는 3.65%, 5년 만기 4.30%로 동결했다. 작년 8월 금리 인하 이후 7개월 연속 동결이다.

인민은행은 매달 시중은행이 보고한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관광객들이 자금성으로도 불리는 고궁을 방문하고 있다. /신화·뉴스스

금리를 취합해 LPR을 고시한다. 동향을 취합한다고 하지만 인민은행이 정책 지도 등을 통해 금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보통 LPR 1년물은 기업 대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

인민은행은 “경제에 질적 성장과 합

리적인 양적 성장을 촉진하고 거시정책을 잘 조합하며 실물경제에 더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온건한 통화정책을 정확하고 힘 있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년물 금리는 지난 15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75%로 고정하면서 동결이 예고됐다. 그러나 이때도 MLF에서 2810억위안(한화 약 53조원)을 순

공급하고,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으로 1040억위안을 풀었다.

5년물 금리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서 일단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11개월 연속 하락했던 중국의 평균 집값은 올해 1~2월 상승세로 전환됐다.

경기 침체에 금리 인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을 감안하면 금리차가 더 확대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대신 다른 수단을 택했다. 기준금리 인하다.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에 앞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해 유동성을 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현금 비율을 말한다. 기준율을 낮추면 은행은 시중에 풀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이달 초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5000억위안(한화 약 95조원)이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유동성 위기 등도 중국이 ‘나홀로’ 통화 완화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쉬안창닝 인민은행 부총재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선진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협을 가져왔다”며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는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차이 중국 수출입은행 부총재는 “앞으로 ‘회색 코뿔소’와 ‘블랙 스완’ 같은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이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 국제 수지 악화, 채무 불이행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UAE 서틀경제협력단, 20억달러 성과

산업부, 34개 기업과 ‘합동 세일즈’ 비즈니스 상담회서 930만달러 추가

정부가 올해 1월 한-UAE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과 원팀을 구성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2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와 신산업 관련 5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34개 기업으로 구성된 ‘한-UAE 서틀경제 협력단(서틀경제 협력단)’이 지난 15~16일 UAE를 방문해 세일즈를 펼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서틀경제 협력단은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UAE 성과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한-UAE 정상외교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력단에는 두산에너지빌리티, 현대건설 등 에너지 플랜트사와 메디톡스, 메인정보시스템, 넥스트온 등이 참여했다.

협력단은 양국 고위관료와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방산 분야 케이테크는 20억달러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에너지 분야 ‘수소연료전지 융복합 사업’과 ‘가상현실 SW 수출’, ‘스마트팜 협력’ 등 5건의 MOU를 체결했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제일산기와 에스엠테크 등 우리 중소기업 11개사와 UAE 바이어·투자사 간 65건의 1대 1 상담을 실시하고 약 930만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정부 고위급 회담에서는 올해 1월 정상순방 계기 체결한 TIFP 후속으로 디지털·바이오 EPA 협의 등을 통해 정상외교 성과를 확대 추진기로 했다. 또 우리기업의 UAE 에너지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수소·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투자 협력 방안과 칼리파 왕립 병원 수탁

운영 수주 지원 등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차 서틀 경제협력단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합동 세일즈를 펼쳐 향후 UAE 시장참여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며 “중동 관련 기존·신규 사업과 양자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제2차 서틀 경제협력단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본부장은 최근 초안이 발표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법(NZAI)과 관련 “IRA와 같은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요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눈에 드러나는 차별은 없다고 보지만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외국기업 피해가 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법안 초안의 대기업 자체 감사는 공급망 관리를 잘하라는 신호이지만 과도하게 할 경우(기업)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초안 발표 이후 내용이 바뀌게 된다.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문제삼는 부분 파악해 협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EU 법안이 집행위 초안에 이어 의회와 각료이사회를 거치고 향후 법안 완성까지 1~2년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산업계 영향 분석해 우리 산업계에 부담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전라북도 수출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정회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신뢰와 경제통상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모든 인테리어의 기준은 결국 퀄리티니가

Quality Interior for life

www.lxzin.com

LX Z:in 인테리어

오후 2:05

[Web발신]
 [OO보건소] 031-XXX-XXXX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특강 안내드립니다
 시간 : 10월 5일 수요일 19:00~20:30
 장소 : 보건소 2층 대강당
 선착순 참여로 참석 여부 회신주세요

오후 2:06

네. 아이 동반도 가능합니다

수원특례시
민원접수

오후 2:06

아이와 함께 참석이 가능할까요?

오후 2:07

네~ 참석할게요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이제, 사용하던 사무실 번호 그대로 손쉽게 문자업무 하세요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양방향 문자 | kt enterprise
 KT 화선 사용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080-258-0303
 enterprise.kt.com

수원특례시 포함 100여개 지자체 및 기업 도입 중 (2022.09.30일자 기준)

DIGICO KT

與 ‘민생’ 행보 본격화… “보여주기 아닌 구체적 성과 창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당내 민생희망특별위 구성 의결
김기현 지도부, 전국투어 예정
“특위, 민생 해결사 역할 할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생’ 행보를 본격화한다. 집권당인 만큼 정부와 함께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공세에 집중하는 것과 비교해 민생 행보로 차별화를 노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락세인 당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0일 당내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의결했다. 김기현 대표가 취임 후 민생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만큼 관련 행보도 본격화한 것이다. 민생특위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특위 구성과 관련해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특위가)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위 위원도 지역·분야별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해 선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조수진 최고위원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생산적 당쟁’을 해야 할 것은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역동적인 당내 인사, 현장 목소

리를 들려줄 신선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구성한 특위 중심으로 현장 목소리도 경청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청취한 민심에 바탕해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고금리 ▲청년 일자리 ▲대학생 급식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으로 지목한 것을 바탕해

구체적인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21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찾는다. 이달 말 출시되는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문제로 비판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문제를 당 차원에서 미리 점검해 대응할 것이라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민생특위 활동에 발맞춰 전국투어도 병행할 계획이다. 각 지역에서 현장 민심을 듣고 정책 대안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첫 현장 최고위는 오는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오는 4월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비한 행보이기도 하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4.5%포인트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은 3.8%포인트 오른 46.4%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대표도 ‘김 최고위원 5·18 발언으로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주된 원인이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일정 부분 부인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이) 순수하게 개인적 발언이었다는 본인 설명과 함께 사과도 했다. 우리 당 입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재차 해명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물밑경쟁 ‘치열’

천명계-비명계 간 대리전 양상
안규백, 홍익표, 이원욱 등 하마평

‘윤 대통령 직할 체제’를 구축한 여당과 각종 현안에 대해 협상하고 당을 결속시켜 내년에 있을 총선을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당규에 따라 지난해 3월 당선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초까지로, 5월 둘째주에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민주당은 곧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일, 선거인명부 작성 등 제반 작업에 착수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초에 종료되기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출범을 같이 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좀 더 조기에 치러질 수도 있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은 4선의 안규백 의원, 3선의 홍익표·이원욱·박광온·윤관석·김경협 의원, 재선의 김두관 의원이 자전다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유력 원내대표 주자였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3선)은 원내대표 이외의 자기 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할을 찾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지는 친이재명계와 이 대표가 단계적으로 퇴진해야 한다는 비이재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당장 총선을 치러야 하는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 대리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만큼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주자다. 언론인 출신인 박광온 의원은 ‘명낙대전’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결선투표에 오른 인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가깝다.

홍익표 의원은 친이재명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에서 만 3선을 한 홍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합지인 서초에 출마하기로 해 ‘도전과 희생’이란 이미지도 얻었다. 홍 의원은 당내 주요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면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민평련 소속 의원실 보좌직원은 “무기명으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는 외부적으로 비춰지기는 자율투표 같지만, 계파 결속을 통한 특정 후보 밀어주기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민평련 안에도 친이재명계 의원과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있는 만큼 과거처럼 계파처럼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가 홍 의원과 박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라며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도 비명계 사이 교통정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일협력, 국민 체감 가능한 후속조치 만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취임 첫 일본 방문 등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을 국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보안을 지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추가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윤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 등 부정적인 여론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전을 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각부처에서, 정치권에서, 경제·산업계와 미래세대에서 여러 가지 교류·협력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미리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한일정상회담 당시 위안부·독도 문제를 비롯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안 됐다고 명확히 말했다”며 특히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명확하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선거제 개편안,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책”

‘정치개혁 2050’ 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모인 청년 정치 모임 ‘정치개혁 2050’은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탈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개혁2050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있어 심각한 우려를 보낼 수 밖에



청년 정치 모임인 ‘정치개혁2050’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위에서 제출한 선거제 개편 3개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태홍 기자

김기현, 김진표 예방… 연대·포용 공감

〈국민의힘 당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무척 증폭돼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는데 김 대표가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 책임감 등을 밝혀줄 것으로 보고 기대가 크다”며 야당과의 연대·포용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취임 후 김진표 의장을 첫 접견한 자리에서 “요즘 국회가 대립적 갈등이 커진다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

그런 만큼 가치나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국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적을 향해 간다는 인식만 함께한다면 연대와 대화, 포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김 대표를 만난 가운데 “우리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 국회에 필요한 것은 연대와 포용”이라며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야당을 챙기겠다는 취지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고, 저하고도 자주 보고 국회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 내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김 의장 당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원내대표를 1년 동안 할 때, 양당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진행했던 게 대부분이었다. 당 대표를 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압도적 배후수요 쏟아지는 유동인구를 선점하라!

23년 2월
입주예정

대형병원이 선택한 바로 그 자리!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월지구 골든에비뉴 PREMIUM 5 더블 역세권 망포역, 서천역 (예정) 동탄도시철도 101역 (예정) 선임대 3~8층 대형병원 입점 확정! 압도적 위치 사거리 코너 맨앞! 압도적 배후수요! 반경1Km내 22,566세대



병·의원
임대문의

031) 293-0700

시행수탁사: 우리자산신탁 (주)
시공사: (주)한창종합건설
시행위탁사: (주)골든에비뉴

‘유동성 확보’ 저축은행, 금리인상에 수익성 개선 ‘빨간불’

79개社 유동성 비율 177%에도
작년 3분기 당기순익 1.3조 감소

PF부실 우려 관련대출 비중 축소
건전성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
高利예금 통한 자금조달도 부담

주요 저축은행이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익성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한파와 기준금리 인상 등 겹악재에 암울한 실적을 예상한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곳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77.1%로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100% 대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NH저축은행(190.6%)과 키움저축은행(181.5%), 키움에스저축은행(181.4%) 등은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가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반면 수익성 제고에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뉴시스

유동성비율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3개월 이내 만기 도래예금 등 저축은행의 부채 지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유동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저축과 투자 목적으로 넣어놓은 목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성은 떨어진 모습이다. 지난해 3분기 전국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3393억원으로 2021년 대비 15.4% 감소했다. 아울러 상위 5곳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 중 순이익이 증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준 금리 인상 여파가 수익성 악화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한파와 함께 조달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이달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예방을 위해 투입을 예고한 28조4000억원 수준의 정책자금 또한 저축은행업계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PF부실을 우려한 저축은행이 관련 대출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했기 때문이다. 각 사별 PF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전체 대출의 1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리테일(소매금융) 감소다. 상당수의 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과 기업대출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데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면 대출 문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개인신용대출 문의가 크게 감소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건전성 관리의 일환으로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신용점수 600점 미만의 저신용차주의 대출 비중을 줄였다. 2금융권의 단골 손님인 중저신용자 대신 고신용차주 중심 마케팅을 강화한 것이다.

연 6% 수준의 고금리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 또한 부담을 늘린 모양새다. 지난해 4분기 시중은행이 연 4% 수준의 예금 상품을 출시하자 저축은행 또한 연 6%대의 고금리 예금으로 맞불을 냈다.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업계는 362조 5865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반면 대출잔액은 347조670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판상품 없이 조용한 연말을 보낸 것 또한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올해 적자만 면해도 선방일 것”이라며 “어느 해보다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고금리 여파... 작년 카드사 순익 4% 감소

기준금리 인상에 이자비용 ↑
장기카드론대출 10.9% 감소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증가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비용 등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2년 신용카드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6062억원으로 전년(2조7148억원)보다 4%(1076억원) 줄었다.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1076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1%(116조원) 증가했다.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살아나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

해진 영향이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884조원으로 전년 대비 13.5%(105조원), 체크카드 이용액은 19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1%(11조원) 증가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5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2%(2조3000억원) 늘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지난 2019년 59조1000억원, 2020년 54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2021년 55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액은 4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9%(5조7000억원) 줄었다. 카드론은 2019년 46조1000억원에서 2020년 53조원으로 늘어나다 2021년 52조1000억원으로 꺾인 후 감소세다.

지난해 누적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2417만매로 전년 말(1억1769만매)보다 5.5%(648만매) 증가한 반면 누적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517만매로 전년 말(1억611만매)보다 0.9%(94만매) 줄었다. 이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등 대체결제수단 활성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전성은 악화됐다. 지난해 말 카드사의 총 채권 기준 연체율은 1.20%로 전년 말보다 0.11%포인트(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카드채권 연체율이 1.38%로 전년말 대비 0.14%p 상승했으며 신용판매 연체율은 0.65%로 전년 말 대비 0.11%p, 같은 기간 카드대출 연체율도 2.98%로 전년 말 대비 0.38%p 상승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감원, 우수사례 공유로 상생금융 확대

매분기 우수한 상품 선정·발표
연말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우수한 상생금융상품을 뽑아 매분기마다 발표한다.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확대하려는 포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조한 데 이어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지적하며 상생금융 확대를 강조해 왔다.

금감원은 20일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출시예정 금융상품이거나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상품 등이다. 단,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은 제외되고 순수하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금융 상품만 해당된다.

은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

한 우대금리 제공 상품이거나 보험은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 출시 등이다.

금감원은 분기별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분기 종료 후에 발표한다.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심사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책 등 리스크관리방안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후에도 당초 금융회사 계획대로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초 우수사례는 각 금융사에서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받고 5월 중에 공개한다. 이후에는 각 분기 후 익월말에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연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관련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미래에셋생명, 고액 표적항암치료 특화상품 선포

Advertorial Corner

‘온라인 암보험’ 소비자 요구 반영
고액암 7종, 일반암 대비 3배 보장

미래에셋생명이 가성비와 편의성을 높인 암보험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암 보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사항을 반영한 ‘온라인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암 진단비에 ▲표적 항암 약물치료 ▲항암약물 방사선치료 ▲항암 방사선치료 등 3종을 담았다. 일반암 최대 5000만원, 표적 항암 약물치료 최대 2000만원, 항암약물 방사선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일반암 보장을 비롯해 고액암 7종은 일반암 대비 3배까지 보장한다. 그 외 표적항암약물, 방사선치료비도 추가로 지급한다. 만 0세~5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진단비형’ 및 ‘표적항암형’ 등 2개 선택지를 통해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2세대 표적항암치료가 대중화되고 있다. 표적항암치료란 정상세포와 차이가 나는 암세포만을 표적삼아 공격하는 최신 치료방식이다. 1세대 항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을 줄였다. 고액의 치료비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보험료는 35세 남성 기준 진단비형,

80세 만기, 20년 납, 주계약(일반암) 2000만원 기준 한 달 2만4980원이다. 기존 미래에셋생명 온라인보험 정상 유지계약이 있는 고객이라면 3%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보험가격지수는 83%를 기록했다. 보험가격지수는 업계평균 대비 보험가격이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낮을수록 저렴하다는 의미다.

이정기 미래에셋생명 디지털영업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보험과 인원은 발병률이 높아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암, 뇌·심장 질환을 꼭 짚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상품”이라며, “고액암과 표적항암치료 포트폴리오를 모두 갖춘 미래에셋 온라인 암보험을 통해 꼭 필요한 보장을 맞춤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카카오뱅크 ‘사기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

AI·머신러닝 기반 FDS 탐지
의심 거래시 이체 전 경고 메시지

카카오뱅크가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는 사기로 신고된 계좌에 카카오뱅크 고객이 이체를 시도하면 ‘사기 신고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준다.

카카오뱅크는 우선 일반 이체 및 오픈뱅킹 이체서비스에 도입한 뒤 향후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자체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기반으로 가족·지인이 통화없이 이체를 요청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등 의심스러운 이체거래로 분석되는 경우 고객에게 이체전 피해예방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반의 FDS 탐지, 피해 예방 모니터링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똑딱이·미러리스… MZ 레트로 열풍에 다시 뜨는 카메라

카메라 업계, 판매량 본격 상승세
크리에이터 중심 수요 크게 늘어
후지·소니, 촬영체험 이벤트 등
업계 다양한 경험 마케팅 진행

카메라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수요가 늘어난데다가, MZ 세대를 중심으로 부는 ‘레트로’ 열풍에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메라 판매량이 상승세를 본격화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던 지난해보다도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

최근 카메라 시장 특징은 크롭 바디나 ‘똑딱이’, 심지어는 캠코더까지 다양한 제품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것. 종전까지는 스마트폰과 경쟁에 밀리면서 고사위기에까지 놓였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모처럼 시장을 회복하는 분위기다.

카메라가 다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크리에이터’다. 유튜브 등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을 넘어선 초고성능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때 고프로와 같은 액션캠이 시장을 장악했지만,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도 늘어남에 따라 편의성이나 휴대성보다는 화질이 높은 제품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 편의성을 지켜야하는 만큼 엔트리급 미러리스가 주목받았다는 전언이다.

캐논은 이를 위해 성능과 휴대성을 높이면서 조작하기 쉬운 엔트리급에 집중했다. 지난해 EOS R 시스템 처음으로 APS-C 센서를 탑재했으며, 지난 2월에는 고사양 엔트리 미러리스 카메라인 ‘EOSR50’과 ‘EOSR8’을 출시하며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제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성장이 두드러지는 수요층은 ‘MZ세대’다. 크리에이터 중 상당수가 MZ세대이기도 하지만, 레트로 인기에 따라 카메라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실제로 MZ세대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사이에서는 카메라와 사진 취미가 일상이 된 모습이다. 적지 않은 글로벌 아이돌이 SNS에 카메라를 인증하거나 개인 작품을 촬영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인기 아이돌은 사진 작가로 변신해 작품전까지 개최했다.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도구만은 아니

다. 패션 소품처럼 인식하는 소비자도 많다. 레트로 인기를 따라 라이카나 옛 DSLR을 닮은 제품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기 연예인이 카메라 매장을 방문해 직접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일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경험’ 마케팅도 본격화했다. 후지필름은 일찌감치 서울 압구정 ‘파티클’을 조성하고 사진전을 개최해왔고, 애비뉴엘점과 함께 제품을 3일간 무상 대여해주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캐논코리아도 서울 강남구에 ‘캐논 플래क्स’를 통해 제품 체험과 교육 등을 제공한다. 니콘이 매달 유튜브 ‘니콘 스쿨’을 통해 무료 사진 강의를 제공하는 것 역시 카메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후지필름일렉트로닉이미징코리아와 소니코리아가 지난해 진행한 영상 촬영 체험단도 대표적인 경험 마케팅으로 꼽힌다. 캐논코리아는 사진과 영상 전문가 ‘캐논 마스터즈’를 통해 기술과 서비스 지원을 비롯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월등한 플래그십만 성장했다면, 최근에는 성능보다는 디자인과 감성에 중점을 둔 크롭 바디 인기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기 ‘손떨림 보정’ 비결은 2억화소 카메라 모듈

삼성전기가 삼각대 없이 별을 찍을 수 있을만한 손떨림 보정 기술을 강조했다.

삼성전기는 흔들림 보정 기능이 2배 향상된 2억 화소급 카메라 모듈(사진)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갤럭시 S23 울트라에 탑재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손떨림 보정 각도를 3.0도로, 종전보다 2배나 높였다. OIS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세계 최고다.

삼성전기는 보정 각도를 2배 늘리기 위해 자성체와 코일 최적 설계로 모듈 크기는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카툰’도 최소화했다는 얘기도.

저조도에서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도록 밝은 렌즈도 설계했다. 고감도 센서를 적용한 불가이드 방식 OIS 액추에이터로 내구성과 정확성도 확보했다. 소비전력도 줄어든다.

삼성전기는 이를 통해 액션캠 수준 손떨림 방지 기능과 함께, 저조도 환경에서도 삼각대없이 별을 촬영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흔들림이 큰 자율주행차에서도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지역 균형발전 강조한 삼성전자, 광주서도 스타트업 육성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개소
내달 경북에도 새 거점 오픈 추진

삼성전자가 광주에서도 스타트업 육성 작전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20일 광주 삼성화재 사무사옥에서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개소식을 열었다.

C랩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는 삼성전자 광주에서도 지역 혁신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성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운영한 C랩 아웃사이드 특징과 노하우를 그대로 이 전할 계획이다. 매년 별도로 공모전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임직원을 1대1로 매칭, 맞춤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과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업체들이 정착하고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모습.

성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

앞서 삼성전자는 이재웅 회장이 취임 후 전국 사업장과 협력사들을 둘러보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 C랩 아웃사이드를 구축했으며, 광주에 이어 다음달 경북에도 새로운 거점 문을 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먼저 AI 혁신거점인 광주 특성에 맞게 첫 입주사 5개를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클리카 ▲고스트패스 ▲인트폴로우 ▲감성택 ▲포엘이다. 최대 1억원 사업 지원금과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계열사와 협력 기회 연결과 CES 등 전시회 참가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클리카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벤 아사프는 “다양한 글로벌 인력들로 구성된 당사 입장에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상당한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C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단계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C랩 아웃사이드 광주캠퍼스 개소식에는 여러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광주시 강기정 시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원표 사장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인해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 도시’ 실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C랩 아웃사이드 광주’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이 많이 나와 광주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은 지역의 창업 인프라가 활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C랩 아웃사이드 광주’가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 공간 경계 허무는 ‘LG씽큐’ 소개

글로벌 표준 연합 CSA 정례회의
‘진화·연결·개방’ 핵심가치 강조

LG전자가 고객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홈 미래를 제시했다.

LG전자는 20일부터 나흘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표준 연합 CSA ‘정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CSA는 스마트홈 생태계 확장을 위

해 개방형 통신 표준 매터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단체다. LG전자는 의장사로 활동하고 있다.

LG전자는 플랫폼사업센터 정기현 부사장이 기조연설 연사로 나섰다. 안팎 공간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스마트홈 경험과, 고도화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LG 씽큐가 실시간으로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까지 알아서 챙기는 스마트홈의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정 부사장은 “가까운 미래엔 LG 씽큐가 고객 생활패턴을 학습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최상의 스마트홈 환경을 조성해 고객 삶의 자유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나아가 집, 직장, 휴가지에 서까지 나를 챙겨주는 똑똑한 동반자 역할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부사장은 LG 씽큐 핵심 가치로 ‘진화·연결·개방’을 강조했다. 스스로 발전하며 편리함을 찾아나서며 이를 위해 외부와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AI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솔루션 ‘엠

비언트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꾸준히 진화할 수 있도록 했다. AI 챗봇 서비스와 AI 기반 음성 기술 등을 적용할 계획, 에너지 관리 기능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연결성도 강화한다. 애플 홈킷과 아카라 등 IoT 기기를 비롯해 ‘매터’ 인증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게 했다.

/김재웅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금호타이어 기후변화 대응 앞장 TCFD 지지 선언

금호타이어가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지지를 선언한다고 20일 밝혔다.

TCFD는 G20 재무장관회의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설립한 협의체이다. TCFD는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목표관리 등)를 공시하고 조직의 의사 결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세계 95개 국가의 약 3400개 기업 및 기관이 TCFD 지지하고 있으며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처음으로 참여한다.

금호타이어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 인한 영향과 금융 리스크를 경영에 반영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TCFD 권고안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한국TCFD얼라이언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TCFD 지지 선언을 계기로 내년에 별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금융권 격전지 된 알뜰폰 시장… “자본력 기반 잠식 우려”

가입자 1306만명 달하는 큰 성장
통신3사보다 요금 30% 이상 저렴
KB, 은행 부수업무 지정 요청
토스, 사전 신청에만 15만명 몰려

금융권이 알뜰폰 격전지가 됐다. 주요 은행과 핀테크, 상호금융까지 알뜰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해있다. 알뜰폰업체들도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며 최근 알뜰폰 사용 증가세가 뚜렷하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전체의 16.9%에 달하는 1306만명(1월 기준)에 달하는 등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통신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수 40만명을 확보한 KB국민은행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알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이 알뜰폰 가입자수 40만명을 확보하는 등 알뜰폰 시장에 선전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폰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스는 알뜰폰 자회사 토스모바일을

통해 지난 1월 30일 알뜰폰 요금제를 공개했다. 사전 신청 시에만 15만명이 몰리는 등 주목을 받았다. 토스모바일 요금제는 토스 앱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

하고, 퀵 배송업체 바로고와 협업을 통해 유심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달 초 알뜰폰 요금제 비교 플랫폼인 고고팩토리와 공동으로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 요금제는 ▲통신사 할인 ▲휴대폰요금 자동납부 할인 ▲하나카드 결제출금 할인 ▲하나은행 첫 거래 추가 할인 등 첫 개통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5000원의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KT망을 쓰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스테이지파이프, 세종텔레콤 등 4개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요금제 12종을 선보였다. '신한 모두다 맘껏 7GB++'는 월 1만8700원으로 기본 데이터 7GB를 사용할 수 있다. 가입 시 데이터 30GB를 제공하는 쿠폰도 발급해준다.

신협중앙회도 최근 한국케이بل텔레콤(KCT)과 제휴를 통해 '신협 알뜰폰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번에 출시한 총 6종의 알뜰폰 요금제는 가격이 이통 3사 대비 반값 수준이다.

금융권들의 적극적인 공세에 알뜰폰 업체들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 너도나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 알뜰폰업체들은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을 크게 반대하고 있다. 한 중소 알뜰폰업체 관계자는 “금융권이 자본력을 기반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요금인하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도산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현대로템, EMU-320 수주… 독주 체제

〈한국철도공사 KTX 신규 고속열차〉

136량, 7000억원 규모 낙찰
우진산전 보다 기술점수 높아

현대로템이 7000억원 규모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 신규 고속열차 입찰을 따냈다.

이번 입찰은 17년 만에 현대로템 단독 무대가 아닌 2파전으로 치러져 관심을 모았지만 현대로템이 독주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도전자인 우진산전은 1단계 기술평가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오는 4월 진행할 1조원 규모의 SR 고속열차 사업 역시 현대로템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대로템은 코레일의 EMU-320 136량의 낙찰공고를 확인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낙찰금액은 7100억원, 1량당 52억원 수준이다. 이번 계약 금액은 현대로템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2조 8725억)의 24.6%에 해당한다.

이번 수주전은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코레일 철도차



EMU-320

량 입찰에 현대로템 이외의 업체가 참여한 것은 2005년 프랑스 알스톰 이후 처음이었다. 다만 기술 점수에서 현대로템은 89.81점을 받았고, 우진산전은 79.30점에 그치면서 현대로템의 독주가 이어지게 됐다.

현대로템 협력업체였다가 성장한 우진산전은 고속철 제작 경험이 없다. 그간 서울 지하철 5·7·8호선, 코레일 1호선과 일산선 등을 제작해왔다.

코레일은 오는 21~22일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달 28일 내로 낙찰자를 최

종결정한 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만에 경쟁 입찰로 진행됐다. 특히 전동차 업계 1위인 우진산전이 스페인 고속열차 업체인 탈고(Talgo)사와 손을 잡고 출사표를 던져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2단계 가격분리 동시입찰제’를 적용해 1차 평가에서 최저 수준(85점)의 기술평가만 통과하면 더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구조다. 저가 수주 전략을 내세운 우진산전은 1단계만 넘으면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탈고와의 최종 협상이 깨진 우진산전은 단독응찰을 결정했다.

철도업계는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이 발주한 EMU-320 112량(14편성) 사업에도 현대로템이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는 평가다. 해당 사업은 신규 차량 확보 5250억원, 유지보수 4750억원 등 총 약 1조원 규모로 방식은 KTX 평택~오송선 사업과 같은 2단계 동시입찰제다. /양성운 기자 ysw@

“국적 LCC 최다 노선… 재운항·증편 가속”

제주항공, 국제선 취항 14주년

제주항공이 국제선 취항 14주년을 맞이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09년 3월 20일 인천~오사카 노선 주 7회 운항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다. 2009년 15만명을 수송했고, 2012년 119만명을 수송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4분기 선제적 일본노선 증편으로 수송객 수 1위를 달성하며 영업이익 187억원을 기록해 흑

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제주항공은 동남아 주력 노선인 베트남·필리핀 노선에서도 각각 평균 93%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국제선 수요 급반등 분위기 속에 재운항과 노선 증편을 가속화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 37개의 국제선을 운항하며 국적 LCC 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항 중”이라며 “끊임없이 새로운 목적지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항공여행 대중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유플러스 장기간 이용 고객 ‘LG트윈스’ 경기초청

LG유플러스가 자사 모바일이나 홈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한 고객을 프로야구 구단 ‘LG트윈스’의 경기에 초청하는 ‘엘심동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서비스나 인터넷과 IPTV를 동시에 5년 이상 사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하고 4월 27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LG트윈스 경기 관람권(1인 2매)과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채윤정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 정탁 선임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사진)이 20일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날 인천 송도 본사에서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탁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주총은 포스코에너지와의 합병 이후 처음 개최됐다.

사내이사로는 정탁 대표이사와 함께 이계인 트레이딩부문장과 이진혁 에너지부문장이 함께 신규 선임되었다. 이는 에너지와 상사 양 부문을 균형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회계·재무분야 전문가인 한중수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역



임한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를 신규 선임해 전문성과 경영투명성을 더했다.

또 주당 배당금은 1000원으로 결의했다.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이와 함께 철스크랩 관련 트레이딩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 사업목적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추가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탁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의 주도 하에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 잡힌 추진으로 주주가치 극대화 기조를 이어간다. /양성운 기자



SKT “PASS로 국민비서 이용하세요”

SK텔레콤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PASS(패스)앱에 가입한 1800만 고객을 대상으로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약 52종의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SK텔레콤

아우디, 전기차 앞세워 역대급 실적 달성

작년 영업이익 76억 유로, 40% ↑
글로벌 위기에도 폭발 성장 이뤄

아우디 등 폭스바겐 프리미엄 브랜드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아우디는 지난해 매출이 618억 유로에 영업이익 76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6.4%, 40%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12.2%로 전년 동기 대비 1.8% 포인트 상승했다. 순

현금흐름도 48억 유로로 역대 두번째를 달성했다.

아우디는 글로벌 공급망 등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관리 능력과 가격 정책에 더해 벤들리와 람보르기니 등 브랜드도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순수 전기 차량 인도량도 상당수 증가했으며, 올해 Q6e-트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동화 캠페인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Enjoy Your Life



유럽제품 을 안방에서 즐기다

COCOSBAY

NAVER

코코스베이



증시 불안감 고조나 완화나… 투자자, 美 기준금리에 촉각

KRX, 코스피 내리고 코스닥 올라
UBS-CS 합병에 안정세 보이다가
미국 기준금리 ‘동결’ 전망 급부상
경제심리 확산, 변동성 다시 상승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증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오는 21일(이하 현지시간)과 22일 양일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집중되고 있다. FOMC 정례회의의 결과에 따라 향후 증시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두고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 동결 또는 인하 등 엇갈린 전망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0.69% 하락한 2379.20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코스닥은 0.60% 오른 802.20에 마감했다. 이날 CS를 같은 스위스 은행인 UBS가 전격 합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개장 전에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82포인트(0.16%) 내린 2391.87에 장을 시작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국내 증시는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3월 미국 FOMC를 앞두고 경제심리가 확산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7043억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이날에도 2062억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893억원, 1061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번 주에는 미 연준이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SVB 파산 사

태 이전까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최소 베이비스텝(0.25%p 금리인상) 혹은 빅스텝(0.5%p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우세했으나, 연준이 베이비스텝 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했다. 그러나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데다 미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 조치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시스템 위험으로 변질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은행 불안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이고 있고 일부에서 인하여지도 열어두는 상황”이라며 “은행발 불안에 따라 연준이 이전보다는 때파적인 태도가 완화될 여지는 있겠으나 은행 불안에 대한 연준과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월 FOMC 말고도 점도표 변화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 기대 간의 괴리가 커졌는데 이는 언제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연구원은 “12월 FOMC에서 공개된 2023년 점도표는 5.1%로 현재 투자자들은 2023년 점도표가 5.1%에서 최소 0.3%p, 최대 1.3%p 하향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점도표가 유지되거나 소폭이라도 상향 조정될 경우 시장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전환되

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채권금리와 달러 반등, 증시의 언더슈팅(UnderShooting)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만약 점도표가 하향 조정될 경우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진정되겠지만, 최근 불거진 금융권 파산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강한 상승추세를 전개해 나가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 FOMC 회의 외에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당분간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SVB발 은행권 위기 여진, 미 연준 FOMC 정례회의, 국내 수출과 주요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대내외 대형 이벤트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 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밴드로 2340~2440을 제시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에코프로 ‘쌍끌이 매도’… 하향 vs 매입 의견 분분

KRX,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
이달 기관·외국인 순매도 행렬

맥쿼리·UBS증권 ‘매도’ 의견 제시
한투증권, 목표가 25만원으로 상향

연초부터 끊임없이 오르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평가 논란 속에서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내부자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상승세가 멈출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이다. 해당 기간 동안 기관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각각 3388억원, 2650억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까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순매도 행렬에 동참하면서 주가 하방압력을 더하고 있다. 이달 중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2위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에코프로비엠 본사. /에코프로비엠

와 4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외국인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에코프로 2399억원, 1611억원을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에코프로 7.85%, 에코프로비엠 -7.41%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속에서 에코프로 주가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

이 사들인 종목에 꼽히면서 외국인 수급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를 밀어올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초 11만원이었던 에코프로는 40만원선을 넘어섰으며, 에코프로비엠은 9만원대에서 20만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최근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를 두고 국내외 증권사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맥쿼리증권과 UBS증권은 리

포트를 통해 ‘매도’의견을 제시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단기간 주가 과열, 과한 프리미엄 등을 이유로 매도의 견과 함께 현재 주가 대비 낮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의 목표주가를 25만원까지 높여잡았다. 김정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는 올해 들어 127% 상승했는데, 삼성SDI 등 고객사의 신규 투자 계획 구체화 및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기대감 상승 때문”이라며 “삼성SDI의 전기차용 2차전지 탑재량 증가, SK온의 2차전지 출하량 증가 등 실적 개선 등이 실적 개선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에코프로 관련 종목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주가가 흔들리는 듯 했지만 결국 소폭 반등한 채 마감했다. 지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영석 기자 ysl@

나라셀라, 코스닥 예심 통과 와인수입 상장사 ‘1호’ 기대

나라셀라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가운데 국내 첫 와인 수입 상장사 ‘1호’ 타이틀을 거머쥔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나라셀라는 신영증권을 주관사로 지난해 10월 심사를 청구해 약 5개월 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 상장 예비심사 효력이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 하반기 안으로 상장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셀라는 지난해 금융분야 고위급 전관, 해외투자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상장을 위한 ‘IPO드림팀’을 꾸렸다. 지난해 3월에는 국세청 출신 김충렬 감사를 새로 영입했으며, 같은 해 6월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석윤수 비파이낸스 한국 대표를 각각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다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 지난 5일 사외이사에서 중도 사임했다.

나라셀라 지분구조는 예심 승인 기준으로 나라로지스틱스가 지분 69.7%로 최대주주다. 나라로지스틱스는 마승철 나라셀라 회장이 최대주주이며 지난 2021년말 기준 7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약 30% 지분을 에이벤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21년말까지만 하더라도 노탁와인문화성장 사모투자가 보통주 지분 약 20%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엑시트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에이벤처스가 나라셀라 신주인수 당시 구주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셀라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국내에서는 와인 수입·유통사로는 1호 상장사가 된다. 국내에서는 또 다른 와인 수입·유통 업체인 금양인터내셔널 역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석 기자

세제혜택·투자수익 ‘두 토끼’… 청년펀드 출시 봇물

만 19~34세, 연 240만원 소득공제
3년 이내 매도면 6.6% 해지 수수료
미래에셋·대신·NH투자 등 상품판매

세제 혜택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펀드)’ 출시가 봇물을 이룬다. 청년펀드는 2030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청년펀

드는 만 19세~34세 미만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펀드 계약 기간 동안 연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이면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가입기간은 3~5년이다. 단, 3년 이내에 펀드를 매도할 경우 납입금의 6.6%의 해지 수수료가 붙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이 관련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어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판매 일정 확정을 계획 중이다.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2030세대의 투자 성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펀드가 주를 이룬다.

지난 1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청년

펀드 3종을 출시했다. 국내 기술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 펀드’, 국내 우량기업 우선주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펀드’, 주식형인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소득공제 펀드’ 등이다.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도 17일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NH-Amundi한국미국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를 내놨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조직 혁신 통해 경영평가 제고… 해양교통안전 솔루션 마련”

김준석 KOMSA 이사장 간담회

선박검사, 안전운항 방안 등 발표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설립 계획
“소통 강화… 평가 저절로 나아질 것”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위탁집행유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곳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집단입니다. 직원들이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인 곳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은 20일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KOMSA 서울출장소에서 한국해양기자협회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선박검사와 선박안전운항에 대해 한단계 높은 시스템적인 대응 방안에도 대해서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해양사고 예방 및 종합관리를 위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실시간 교통량 분석, 여객선 입출항시간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20일 KOMSA 서울출장소 영등포구 출장소에서 ‘한국해양기자협회 초청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양기자협회

예보 등 7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MSA는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를 인천과 목포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는 일종의 선박검사장으로, 지정·예약을 통해 당일 검사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김 이사장은 “매년 국내에서 약

2000척의 어선이 신조되고 있지만 분산된 영세 조선사에서 건조되고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으로 조선사 집적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관리·지원을 통해 조선사 경쟁력 및 어선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선건조 지원센터는 전남 고흥에 490억 원의 사업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약 3만 5700평, 완

공예정일은 2027년이다.

공단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2015년에 비해 현재 공단의 인원과 예산은 2배로 확대됐으며, 김 이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사업으로 향후 5년 내 조직이 40% 이상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530명 수준(계약직 제외)인 직원이 5년내 1000명이 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몇 년 사이 조직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공단 내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조직원들 간 의사소통에 문제도 발생했으며, 해양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대외적으로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서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E’를 받은 이력이 있다.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로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부산해양수산청장,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해수부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로 알려져 있다.

김 이사장은 “KOMSA가 해양안전

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모든 해양안전사고를 직접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며 “우리 공단에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관리를 정책 위주로 철저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업무, 해양교통시스템업무, 연구 업무에서 가시적 성과 보인다면 경영평가 등급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임 후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약 100일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5본부 4본부를 줄이고 부서도 74개에서 55개로 통합하고 인력도 감축했다. 지방조직은 18개 지사, 2개 출장소, 12개 운항관리센터로 개편했다.

김 이사장은 “당장 경영평가가 좋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대내적으로 조직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소통 경영을 강화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평가는 나아질 것이고, 이는 또 국민들의 해양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퓨처엠’ 사명 변경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 탈바꿈
김준형 사장, 대표이사 선임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퓨처엠’(POSCO FUTURE M)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거듭난다.

포스코케미칼은 20일 포항 본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포스코퓨처엠으로 사명 변경을 확정하고 김준형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 선포식을 개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1971년 창립 당시 포항촉로주식회사를 비롯해 52년간 맞이한 8번째 이름이자, 2019년 양극재 사업을 담당하던 포스코ESM과 합병하며 포스코켄텍에서 포스코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한 지 4년 만의 새 이름이다.

새 사명은 경쟁력 있는 소재(Materials)를 통해 세상의 변화(Movement)를 이끌며 풍요로운 미래(Future)를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Management)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지주사 출범과 함께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 핵심 사업 회사로 그룹의 새로운 미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이 20일 포항 본사에서 개최된 사명변경 선포식에서 사기를 흔들고 있다.

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자원 빈국인 한국에 포스코그룹이 ‘제철보국’의 정신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이제는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최고 품질의 소재를 공급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소재보국’의 대업을 이뤘나간다는 다짐도 함축했다.

최근 이차전지 사업이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사업 분야로 선정되면서 포스코퓨처엠의 그룹 내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회사

이름도 시대정신과 소명을 담아 조금씩 변화했다”며 “화학·에너지 소재 글로벌 리딩 컴퍼니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100년 기업의 새 미래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여정을 이름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새롭게 회사를 이끌 사내의 이사로 선임했다. 김준형 사장이 대표이사로, 윤덕일 기획지원본부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 현재 사내이사인 김진출 안전환경센터장과 김원용-이동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인 유병옥 포스코 친환경미래소재팀장은 재선임됐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중, 자율운항 LNG 운반선 개발 나서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JDA 체결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 선박 기술업체 ‘콩스버그’와 손잡고 자율운항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개발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선박 기술업체 콩스버그와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 협약(JDA)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콩스버그는 선박에 탑재되는 자동화·항해 시스템 및 디지털 솔루션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 기자재 업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최신 원격 자율운항기술 및 저탄소 기술을 최적화해,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 17만4000m³ 급 차세대 LNG운반선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천연가스 물동량 증가로 인해 매년 선가가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왼쪽)과 리사 에드바스 하우겐 콩스버그 마린타임 대표이사가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협약서(JDA)에 서명하고 있다.

치솟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은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종이다.

삼성중공업은 “콩스버그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고 미래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적극 공략해 디지털·친환경 제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SK실트론, 지역농가 지원 팔 걷어… 못난이농산물 과자 출시

버려지는 농산물, 이색 먹거리 활용

SK실트론이 초등학생들과 머리를 맞대 개발한 못난이농산물 야채칩이 나왔다.

SK실트론은 와디즈에 ‘갈릭마브’와 ‘어니언 마브’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못난이 농산물로 만든 스

낵이다. 지역 농가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수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SK실트론은 구미 정수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구성된 ‘밝은E’들 팀 아이디어를 현실화했다. 지역 ESG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시행한 ‘my구미’ 프로그

램을 통해서다.

SK실트론은 못난이농산물야채칩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자금 지원과 김영빈 요리연구가 등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판로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지역 농가와 판매처를 확대하며 지역 특산물로도 발전시키자는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juk@

벤츠코리아

7세대 SL 라인업 공개

메르세데스-벤츠 로드스터가 돌아온다.

벤츠코리아는 4월 7세대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출시를 앞두고 라인업과 가격을 공개했다. 2023 서울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출고가는 각각 2억3360만원, 2억5860만원이다.

SL은 벤츠가 1952년 처음 선보인 후 70년간 이어오고 있는 럭셔리 로드스터다. 레이싱카 300SL을 시작으로 7세대에 걸쳐 업그레이드됐다.

이번 모델은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와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퍼포먼스’ 2종으로 출시된다. 처음으로 AMG가 독자 개발하며 의미를 더했다.

외관은 벤츠가 추구하는 ‘감각적 순수미’에 AMG 스포티함을 결합했다. 긴 휠 베이스와 보닛에 짧은 오버행, 경사진 전면 유리로 특별한 비율을 완성. AMG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프론트 엔드를 강조한다. 14개 수직 슬랫이 평평한 보닛 형태와 2개 파워 벌지와 함께 원조 모델인 300SL을 연상케 한다.

인테리어는 ‘하이퍼아날로그’를 구현했다. 제트키 터빈 노즐에서 영감을 받은 송풍구 디자인을 이어가면서 12.3인치 계기판과 11.9인치 센트럴 디스플레이 등을 조합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토마스 클라인 대표이사 사장은 “7세대 SL이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선사하며 럭셔리 스포츠카의 기준을 재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660원 코인 100원에’… 가상자산 투자 유도 사기 주의보

공정위 피해보상 민원사례 제시
속칭 ‘주식리딩방’ 전문성 없어
카톡·문자 등으로 소비자 현혹

2개월간 피해 상담 114건 달해
불법업체 의심될 땐 경찰 신고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 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금액을 보상해줄겠다고 지속 연락을 시도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B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 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 연락했다.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면서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첨부해 제공했다.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부당한 서비스 제한·중단 조항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은행·상호저축은행)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2월 9일)

* 본인명의 계좌의 실시간 잔액조회, 거래내역 등의 금융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별도 통지 없이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

○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2022년 12월 20일)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6개월 단위로 신탁기간을 자동 연장

가입을 유도한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의 피해보상 관련 민원 사례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

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속칭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서비스는 문자나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정위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약 2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에 달한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

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했다.

불법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산재 노동자 1493명 “권리 구제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작년 1만건 접수
강순희 “노동복지 허브역할 만전”

지난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1493명이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접수된 1만107건 중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총 1493명(14.7%)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 소송 제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산재 여부를 심의한다.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이 산재보험 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면 심사를 통해 바로 잡는 방식이다. 법원 소송을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이 발생하지만, 위원회를 거치면 60일 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적극 행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 노동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농협경제지주

고품질 국산 배 최대 40% 할인

배 소비 촉진을 위한 최대 40%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농협경제지주는 3월 20일~4월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배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배 생산량 증가와 내수시장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몰과 하나로마트를 통해 농협이 엄선한 고품질 국산 배를 특별할인가격에 선보인다.

농협몰에서는 3월20일~4월2일까지 3kg, 5kg 등 배 패키지 상품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또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에서는 3월30일~4월12일까지 소포장 배(4입봉, 3kg 박스)를 최대 30% 할인한다.

/세종=한용수기자

68만여 대학생들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

농식품부, 서울대 등 41개교 선정

서울대 등 41개교 68만여명의 대학생들에게 1000원짜리 아침밥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목표 지원 인원 68만4867명)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대 아침식사 결식률은 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대학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 인원을 대폭 늘렸다.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에 크게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고,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의견도 91.8%였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aT, 베트남 대형 B2B 시장진출 확대

MM 메가마켓 호치민 본점 개막식
농림축산식품부와 판촉 행사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베트남 대형 B2B(기업간거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17일 현지 창고형 대형유통업체 ‘MM 메가마켓’과 함께 ‘한국의 맛’ 판촉 행사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aT는 17일 호치민 본점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하노이, 하이퐁, 다낭 등 8개 도시 12개 매장에서 딸기, 포도, 버섯 등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김치, 쌀 음료 등 60여 종의 우수 K-푸드를 집중 홍보하고 판촉한다.

aT는 개막식에 앞서 16일 메가마켓 호치민 본점으로 현지 외식·호텔업계와 식품 판매상 등 대형 B2B 고객들을 초청, 현지인 셰프가 한국의 된장, 사과식초, 소주 등 다양한 식재료로 만든 소스

를 활용해 요리를 선보이는 쿠킹쇼를 개최해 큰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딸기, 김밥, 떡볶이, 김치, 음료 등 다양한 K-푸드를 시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MM 메가마켓’은 베트남 전역에 총 21개의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현지 B2B 식품 유통의 선도 기업이다. 호텔, 레스토랑 등 대형 식자재 수요처는 물론 중소 유통매장, 지역상인 등 도매로 식품을 구매하는 전문고객 비율이 70%에 달한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베트남은 경제 발전과 함께 고품질 식재료와 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메가마켓과의 협력을 계기로 베트남 대형 B2B 시장진출에 박차를 가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기정 “M&A 시정방안 자율 마련 제도화”

공정위 제1목적, 공정 경쟁 기반 형성
훼손 않는 범위서 인수합병 적극 심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업 인수합병(M&A)와 관련해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공정위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참 이사진을 비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국내외 기업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핵심 추진 과제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등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적합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 현재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해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다만,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개별 M&A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M&A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1 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M&A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엔지니어 마스터 II 다이버 크로노미터
더 많은 보호 기술을 통합하여 강력한
다이버 워치 궁극의 강인함과 극한의
정밀도를 느껴보세요.



www.ballwatch.kr
볼워치 부티크 청담 1544-7593

BALL
OFFICIAL  STANDARD
Since 1891

‘교육 포기정책’ 불평등 심화에 전국 예비교사 팔 걸었다

전국 교대생, 동시다발 시국선언
교원감축 등 정책 후퇴에 ‘분노’
교육전문대 의견 수렴 부족 지적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 오류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교육 포기 정책’,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원 감축’, 교대생도 모르게 진행된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등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일 예비 교사인 전국 교대생들이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 포기 정책 규탄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나섰다. 교대생들은 이날 “우리 예비교사들은 앞으로 40년간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로서 공교육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문제의 진단도 대책도 잘못된 정책, 경쟁이 점령한 교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며 교육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앞에서 열린 ‘교육불평등 심화 및 교육 포기 정책 규탄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부의 교육불평등 방기를 지적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각 학교 점심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됐으며 경인 교대, 광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서울교대 등 5개교에서는 기자회견이 함께 열렸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0일 시

국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김민아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고착화돼 온 교육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오히려 후퇴하는 정책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 대학

마저도 경쟁 구도가 심해지는 현 시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정부의 역행 정책에 저지하고자 하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학급당 교사 비율을 높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반대로 기간제 교사를 늘리고, 교원 채용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4년제 대학 중심 교사 양성체계를 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을 추진하면서 교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대 측에서도 교대의 5년제 혹은 6년제로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며 “현재 사대는 교원 양성 기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교

육부에서 충분한 관련 집단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교대생들은 교육전문대학원 추진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대련이 교대생 4186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심각한 탁상 정책 형식의 졸속 추진’, ‘단순히 정부의 실행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 ‘교육 주체간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탁상행정가들의 독단적인 주장’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일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도 교육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짐이 주목됐다. 연구팀은 “교육기관들이 고등교육 정책 추진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 증축 쉬워진다 여의도 공원, 세계적 도심 문화공간으로

대학 전체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 풀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관내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쳐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해당 구역에는 반도체 등 첨단학과 산·증설, 실험실·연구소 같은 산학연계 및 창업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처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우선 배치된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 전체의 용적률은 기존의 최대 1.2배로 확대된다.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오는 7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대학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재 중앙대·홍익대·고려대·서울시립대 등이 제도 적용을 통한



삼육서울병원 신관동 증축안. /서울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시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도 없앴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만 완화 받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 이상도 건축 가능해진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자연경관지구 내 시설은 건폐율도 완

화된다. 시 관계자는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 증축이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작년 7월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녹색병원·강동경희대병원 등)들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0

오세훈,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비전 공유
제2세종문화회관, 수변 랜드마크로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도심 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 공원 내에는 수변 랜드마크가 될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18일(현지시간)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엘프필하모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옛 창고 건물에 철제 구조물을 올려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엘프필하모니에서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을 수변 랜드마크로 만들 방안을 모색했다.

엘프필하모니는 스위스 건축 듀오 헤르조그 앤 드 뫼롱이 1966년 지어진 낡은 카카오 창고를 열어붙은 파도의 형

상으로 리노베이션한 건축물이다. 콘서트홀 외에 호텔, 스파,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의도공원은 중심 지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과 단절돼 접근성이 떨어져 도심문화공원으로의 재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여의도공원을 수변 국제금융 도심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도심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이곳에서 서울의 수변 문화 랜드마크가 될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을 예정이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의 사전 디자인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을 제안받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 관련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13개 선정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 확산
산재 예방사업, 노동자 심리지원 등

경기도는 ‘2023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공모 결과 9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

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올해부터 시군도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총예산이 지난해 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억 8,6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지원 한도도 사업당 최대 2,5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선정된 사업은 분야별로 ▲실태조사 4건 ▲노동 상담 3건 ▲교육 및 여가 지원 3건 ▲복합(컨설팅, 교육 등)사업 3건 등이 있으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감정노동자 심리지원사업, 가사노동지원사업 등을 제안한 5개 사업이 가점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 명단에 선정됐다.

지역 노동 현안을 반영한 사업도 눈에 띈다. 파주시는 파주시 노동희망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주시 농업종사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조사를, ‘김포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온라인 모국어 노동법교육에 나선다. 부천시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아일랜드 투자노하우 벤치마킹

오세훈, IDA 찾아 투자유치 전략 모색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16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을 찾아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모색했다고 20일 밝혔다.

IDA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와 투자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아일랜드 정부가 1969년 설립한 투자유치 전문기관이다.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는 불과 3년 만에 이를 졸업했다.

시는 “아일랜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13.5%, 작년은 12.2%(잠정치)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또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은 13만1000달러(추정치)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12.5%의 낮은 법인세와 IDA가 주도하는 투자유치 활동이 아일랜드 경제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으로 꼽힌다.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 24%와 유럽연합(EU) 평균 21%의 절반 수준이다.

이날 IDA를 방문한 오 시장은 ‘서울 투자청-IDA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의 대표적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서울투자청과 IDA는 업무 협약을 계기로 ▲투자네트워크 파트너십 촉진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기업 정책과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라운딩 시즌… 보양식·주안상으로 ‘골퍼 입맛’ 잡아라”

CJ프레시웨이 골프장 50여 곳 클럽하우스서 식품서비스 운영 사업목적에 주류 추가, 와인 선배 상춘객 겨냥 ‘온그린 한상세트’

아워홈 ‘바다 주안상’ 등 출시 **삼성웰스토리** 골프장 57곳서 스테디셀러 리뉴얼, 20종 준비

겨울이 가고, 본격 라운딩 시즌인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외식업체가 골프장 식품 서비스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골프 시장이 급성장한 데다 골프장에서의 식사는 라운딩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클럽하우스 내에서 직접 와인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는 현재 국내 골프장에서 50여 곳의 식품서비스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CJ프레시웨이의 지난해 골프장, 휴게소 등을 포함한 레저 및 컨디션 부문 매출은 1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4% 증가했다.

2012년부터 골프장 푸드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CJ프레시웨이가 와인사업에 눈독을 들인 것도 최근 호황에 걸맞는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다. 이에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입주



아워홈 골프장 신메뉴 ‘산더미 짬뽕 순두부 전골’(위 부터 시계방향)과 온그린 한상세트, 아워홈 골프장 시그니처 메뉴 ‘바다 주안상’.

류 및 주류수출입 등의 사업목적을 새로 추가한다. 이번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CJ프레시웨이는 와인 유통을 본격화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식품서비스사업장에서 차별화된 와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CJ프레시웨이는 그간 축적한 서비스 운영 데이터와 현장 노하우를 모아 영양사, 조리사, 매장 매니저 등 직무 유형 별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위생 안전, 메뉴 분석, 식단 운영 등 식품서비스 역량 전반이 포함되며, 경로 특성을 반영해 고객 소통 롤플레이팅, 고급 플레이팅 노하우 등 전문 주제가 더해졌다.

최근에는 상춘객 수요를 겨냥해 ‘청



춘(青春), 푸른 봄을 맛보다’라는 콘셉트로 고품질 해산물, 제철 봄나물 등 귀한 식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보양식 메뉴를 출시했다.

영양가 높은 소고기 아롱사태를 가득 담은 ‘온그린 한상세트’, 원기회복 재료로 빠질 수 없는 메기와 미나리를 곁들인 ‘봄 미나리 메기 매운탕’, 바삭한 튀김류에 해초 샐러드를 함께 담은 ‘스프링 바스킷’ 등이다.

글로벌푸드기업 아워홈도 본격적인 골프장 개장 시즌을 맞아 골프장 전용 신메뉴를 출시했으며 올 한 해 골프장 식품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미식가객 주안상’을 콘셉트로 골프장 시그니처 메뉴를 순차 출시할 방침이다.

이번 봄을 맞아 선보이는 첫 번째 미식가객 주안상 시그니처 메뉴는 바다를 주제로 한 ‘바다 주안상’이다. 문어 삼합, 아구 불고기, 조개탕 등으로 구성했다. 문어 삼합은 신선한 문어와 함께 그 맛을 배가시키는 관자, 보쌈, 묵은지, 꼬시래기, 세모가사리, 명태 회무침, 마늘쫑 등을 푸짐하게 더했다. 아구 불고기는 매콤한 양념으로 버무려 입맛을 살린다. 모듬 조개탕에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클로렐라면을 넣어 깔끔한 국물과 이색 면요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산더미 짬뽕 순두부 전골’ ‘누룽지 해물 해장 파스타’ ‘전복 멍게 비빔밥’ ‘멍게 비빔밥’ 등 새로운 메뉴를 선보인다.

삼성웰스토리도 골프장 개장 시즌을 맞아 전국 57개 골프장에서 봄시즌 메뉴 20종을 선보였다. 봄동 햇마늘 주꾸미 볶음, 봄맞 전복 돌솥밥, 봄채소면과 향정수육 등이 대표 메뉴다. 그동안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 메뉴들을 봄 시즌에 맞춰 리뉴얼하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제로슈거 음료, 수제버거, 하이볼과 프리미엄 전통주 등과 같이 그동안 골프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새로운 제품들도 준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리온 ‘마리비스킷’ 이디야커피와 콜라배

오리온은 신제품 ‘마리비스킷’이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 수 1위인 ‘이디야커피’와 콜라베이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출시 초기부터 ‘디푸드 비스킷’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리비스킷을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오리온은 오는 26일까지 전국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아메리카노 엑스트라 사이즈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총 14만 봉 한정의로 마리비스킷을 증정한다. ‘마리비스킷 x 이디야커피 인증샷’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마리비스킷과 이디야커피를 함께 즐기는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필수 해시태그를 달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마리비스킷 1박스를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카카오 알림톡으로 ‘진료 예약·변경·취소’ 하세요”

이대서울병원, 국내 첫 서비스 도입 **회원 가입절차 없이 모바일로 처리**

이대서울병원이 지난 17일부터 국내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진료예약과 관련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기존 의료기관에서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진료 예약변경과 취소 서비스만 가능했지만, 이대서울병원의 카카오 알림톡 진료예약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병원 홈페이지나 웹에서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병원에서 발송된 알림톡을 통해 진료예약은 물론 예약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신규(초진)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지 않고 알림톡을 통해 간편하게 진료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대서울병원은 카카오 알림톡 진료예약 서비스를 통해 ▲간편 진료예약(신, 초진 포함) ▲예약 변경 및 취소 ▲환자 정보 등록 및 변경 ▲래 진료과 및 센터 번호 찾아가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대서울병원 한우정 원무팀장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들이 병원 내 원무접수 수납창구를 거치지 않고도 예약 및 등록절차를 모두 모바일에서 처리할 수 있어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의사의 휴진이나 퇴사 시 이미 예약된 환자들은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변경해야 했지만 알림톡으로 환자가 간편하게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 처리할 수 있어 병원 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은 향후 카카오 알림

톡을 통해 모바일·예약 검사비 수납, 진료비 영수증 등 입·퇴원 수속과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대서울병원 카카오 알림톡 진료예약 서비스를 개발한 ㈜바이타민은 병원 키오스크 서비스로 시작해 국내 최초로 ‘제증명 전송시스템’(특허등록) 및 ‘원터치 알림톡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회사다. 이대서울병원의 카카오 알림톡 진료예약 서비스는 원터치 알림톡 통합 서비스에 해당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스타벅스, 봄 음료·푸드 3종 선보여

스타벅스가 20일 서울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 점에서 매년 봄을 맞아 출시하는 ‘슈크림 라떼’와 ‘핑크 플라워 유스베리티’, ‘바질 레몬 서벗 블렌디드’ 등 음료 3종과 푸드 3종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하이트진로-티오더, 상생협력 MOU

영업망 홍보, 가맹점 확대 박차

하이트진로는 태블릿 주문 플랫폼 ‘티오더’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티오더는 태블릿 메뉴판을 활용해 비대면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2019년 8월 태블릿 메뉴판 런칭 후 현재까지 약 1700여개 매장에서 매달 12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업계 1위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박형철 하이트진로 상무, 권성택 티오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업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와 티오더는 각사가 보유한 영업력과 기술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비대면 주문 확산 트렌드를 반영, 티오더의 태블릿 메뉴판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와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브랜드 광고 노출은 물론, 다채로운 소비자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티오더는 하이트진로의 전국 영업망을 통한 직·간접적인 홍보로 가맹점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파리바게뜨, 오트리와 협업 ‘그린페어’

오트리 밀크티·카페라떼 등 선보여

파리바게뜨가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몸에 좋은 곡물과 채소를 활용한 ‘2023 파리바게뜨 그린페어’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스웨덴의 식물성 귀리 음료 브랜드 ‘오트리(Oatly)’와 협업한 음료와 식빵 등을 선보인다. 진한 홍차와 귀리 음료 오트리의 조합으로 고소하면서도 향긋한 향미가 일품인 ‘오트리 밀크티’와 오트리에 파리바게뜨 자체 커피인 카페 아다지오의 에스프레소 샷을 더해 라떼의 풍미를 살린 ‘오트리 카페라떼’가 대표 음료다. 그리



와 함께 곁들일 단백질이 풍부한 고소한 곡물 식빵 ‘홀그레인 오트식빵’도 내놓는다. 대체육을 활용한 제품도 있다. 직화구이향을 입힌 식물성 대체육과 아삭한 야채로 건강, 환경까지 생각한 ‘플랜트 디럭스 샌드위치’ 2종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건강한 야채와 부드러운 닭고기, 견과류 등이 들어간 제품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던킨, 헬시플레저 트렌드 반영 ‘오트 그레놀라 필드’ 출시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귀리를 활용해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도넛 ‘오트 그레놀라 필드’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던킨이 새롭게 출시하는 ‘오트 그레놀라 필드’는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MZ 세대의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트렌드를 반영해 영양이 풍부한 곡물인 귀리(오트)를 활용해 만든 제품이다. 무기질(칼슘)과 비타민을 첨가한 오트리 오트음료로 만든 부드러운 필링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바삭한 오트와 그레놀라를 올려 조화로운 식감을 완성했다.

비알코리아 던킨 관계자는 “도넛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신제품 ‘오트 그레놀라 필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도넛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대한항공-델타항공,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구슬땀’

조인트벤처 설립 5주년 앞뒤
주택보수 작업 현장 직접 참여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5주년 앞두고 필리핀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필리핀 칼라우안에서 델타항공 직원들과 함께 거주 시설이 열악한 이웃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주택 보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2013년 10월 마닐라 케손 지역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주 시설을 제공하는 현지 비영리기관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 필리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직원들이 지난 17일 필리핀 칼라우안에서 시설이 열악한 이웃들을 위해 주택 보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과 조인트벤처 체결 이후 대한항공과 공동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델타항공이 참여했다.

필리핀 라구나 주의 칼라우안은 2009년 태풍 온도이의 피해를 입어 주거지를 잃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650여

가구의 재정착촌이 있는 곳이다. 아직 110여 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입주할 수 없는 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직원들은 주택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해 건축자재 운반, 주택 외벽의 페인트 작업, 목공 작업과 창호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철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장은 “대한항공은 2013년부터 해비타트와 협력해왔고 이번 행사에는 조인트벤처 설립 5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델타항공의 직원들과 함께 참여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 ‘스타 어워즈’ 개최… 151명 시상

2022년 기아 판매 최강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기아는 지난 17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2023 기아 스타 어워즈’ 행사를 열고 판매 우수 직원 151명을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지난해 670대를 판매한 삼양지점 이광욱 선임이 판매왕으로 선정됐다. /기아



현대삼호중, 지역 혈액난 극복 팔 걷어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들이 혈액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을 위해 단체 헌혈을 진행했다. 20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2023년 상반기 생명의나눔 전사 헌혈 행사’를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광동제약, ‘광동 프리스 展’ 개최

KDF, 게임, 이벤트 3개 공간 전시
게이머방 재현… 색다른 경험 제공

광동제약은 서울 서초동 본사 2층에 위치한 가산천년정원에서 광동 프리스 선수단의 소개전시인 ‘광동 프리스 : We are KDF 전(展)’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광동 프리스’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KDF, 게임(GAME), 이벤트(EVENT)를 주제로 공간을 나누어 각각 선수단 연혁, 경기종목 소개, 온대게임 시음 등으로 전시를 구분했다. 특히 이벤트 존은 ‘게이머의 방’을 재현해 게이밍 기어 등 일반적인 사무용 컴퓨터, 주변기기와 다른 장비



광동제약은 서울 서초동 본사 2층에 위치한 가산천년정원에서 광동 프리스 선수단의 소개전시인 ‘광동 프리스 : We are KDF 전(展)’을 개최한다.

를 체험해볼 수 있다.

‘광동 프리스’는 2016년 아마추어팀 ‘레블즈 아나키’를 인수하며 창단한 이래 총 7개 종목 5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에쓰오일, 봉사 후원금 1억2300만원 쾌척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전달

에쓰오일(후세인 알 카타니·사진)은 20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서울지역 사회봉사단 후원금 1억 2300만원을 전달했다.

S-OIL 사회봉사단은 2007년 창단 이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2011년 사회봉사단파트너십을 시작으로 10년간 160여개 복지기관에 약 12억원을 후원했다. 에쓰오일의 이번 기부금은 서울지역 저소득 가정 무료 식료품 전달, 보육시설 아동



문화 체험, 장애인 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역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에쓰오일서울지역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봉사활동을 금년부터 재개하며,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불보건설기계, 차세대 장비·솔루션 선배

美 ‘콘엑스포’ 참가… EC500 공개

불보건설기계가 전세계에 지속가능한 차세대 장비와 솔루션을 소개했다.

불보건설기계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콘엑스포 2023’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보건설기계는 ‘변화는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전환을 대비한 미래 기술을 앞세웠다.

전기 굴착기와 전기 아스팔트 컴팩

터, 충전 솔루션과 무화석 강철을 사용한 굴절식 덤프트럭 등 친환경 첨단 기술이다. 소형 전기 휠로더와 굴착기를 시승해보는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커넥티비티 등 서비스를 경험하는 솔루션 홀도 제공했다.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는 EC500 대형 크롤러 굴착기 프로토타입도 처음 공개했다. 차세대 굴착기 콘셉트 디자인으로, 기존 모델보다 운전석 디자인과 작업자 인터페이스 편의성 등을 높였다.올 4분기 양산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SK케미칼 ‘리사이클링 스토리’ 공모·챌린지

SK케미칼은 리사이클링 스토리 대학생 공모·챌린지 ‘리사이클링 생태계에 그린라이트’를 개최한다.

20일 SK케미칼은 국내 화학업체가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생태계 구축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모집에 나섰다.

공모전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기술과 사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핵심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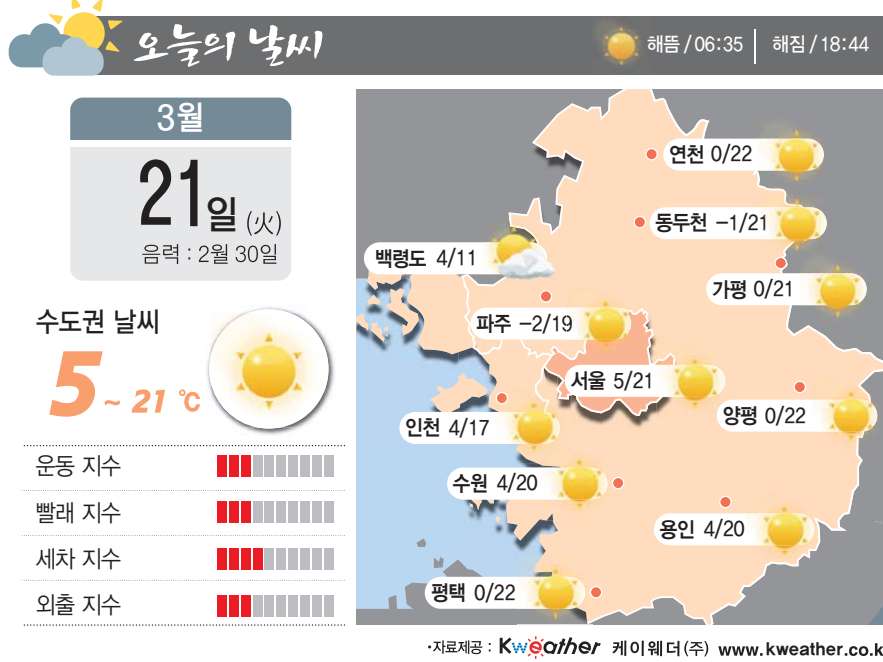
중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알려 나갈 방안을 짚은 층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희망자는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한 캐치프레이즈와 리사이클링 스토리 라인, 이를 실행할 세부 캠페인 프로그램 등 과제 등을 작성해 응모할 수 있다. /허정운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지원활성화 모색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지원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백혜련 국회 정부위원장과 오화경 회장을 비롯한 저축은행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백혜련 정부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인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승진△시설운영실장 김석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장 서기관 남찬우

◆라이나생명 ◇상무 선임△박규현(인사관리본부)◇전무 승진△조윤경(재무관리본부)◇상무 승진△조윤경(GA영업본부)△박경식(경영지원부) △석승현(TM영업관리부) △장재원(DT사업부)◇이사 승진△윤태욱(GA기획팀) △서민호(운영서비스부) △백혜진(재무부) △김형남(재무관리부) △배주한(Pricing 언더부) △김종운

(채널시스템팀)〈라이나원〉◇상무 선임△박규현(인사관리본부)

◆동양생명 ◇전보 △투자지원팀장 김성중 ◇ 승진 △재무회계팀장 이영주

부음

▲김장수씨 별세, 김용국(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진부장)씨 부친상 = 20일, 인천 새천년장례식장 301호, 발인 22일 오전 6시30분. 032-552-3100

▲김일근씨 별세, 권태완(뉴시스 부산취재본부 기자)씨 외조부상 = 20일, 경남 통영시 새통영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051-647-7300



동아제약, ‘세이브투세이브’ 캠페인

동아제약은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어린이가 그린 세이브투세이브(SAVE2SAVE)’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어린이 구강건강과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지켜 자연과 인류의 공존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동아제약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기조강연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강연. 1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강연. 2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강연. 3
은퇴 준비와 재테크 전략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2023. 3. 22 (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철저한 방역 하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 축 사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개 회 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 기조강연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교수
- 강 사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공간·숙박업창업 인허가 규정 개선해야



이 상 현 역
창업 칼럼

요즘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소비가 마스크 해제와 동시에 보복소비형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일 흡소핑에서 판매되는 해외여행상품들이 대박이라는 기사가 즐비하고, 제주도 항공권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전반적 경기상황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선 아직 70%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매출대비 세금과 공과금, 원부재료비용은 오히려 크게 올라 현실수익성은 오히려 크게 낮아져 있다. 유독 여행관련 업종들의 호황현상은 소위 그동안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여행욕구심리가 각종 규제가 간소화되면서 폭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 이후 증가했던 골프인구와 비례한다. 각종 골프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오히려 해외에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는 비용과 크

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스스로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소위 그로 인한 골프인구의 해외유출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가격,서비스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제는 제도적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정비할 시간이다.

일례로 소위 유명하다는 관광지나 지역내 숙박,식당등 이용금액의 바가지는 매년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얼마전 백종원씨가 고향지역내 전통시장과 관공서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탑재해서 명소로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필자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보니 해당시장을 방문.여러가지를 점검했으나 실망만 하고 돌아왔다. 고객중심이 아닌 상인,지역중심으로 서비스와 품질이 너무 아쉽게 운영되는 실정을 확인했다.

얼마전 동해시에서 불법숙박업소를 단속한 기사를 접했다. 동해시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었고 서울에서 두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한 KT X 목호역이 있으므로 급격히 선호하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만큼 잘 준비하고 노력의 결과라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허가규정에 대한 미비로 통속적

숙박시설을 그것도 바가지요금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곧 타 지역과 같은 흘러가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위 공유공간 아이템인 에어비앤비의 미신고 운영 업소에 대한 규제내용이다. 물론 불법을 용인하고 조정해서는 안 된다. 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나 제도를 무시하는 행정으로 선량한 시민을 불법적 운영의 범법자로 만들고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공유숙박업소는 숙박과 임대로 구분되고있다. 숙박은 침구류의 제공과 세탁지원,수건과 샴푸등을 제공하며 하루이상 장소공유를 의미하고, 임대는 관련한 내용을 제공치 않고 일주일 이상 단순 공간 임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 규정 또한 애매하다. 확실한 구분의 근거가 부족하다.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된 인허가 사항과 규정을 수정하고 합법적으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정부나 관련 단체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그저 옛날 잣대로 흑백논리만으로 규정만 운운하면 오히려 관련 지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일 뿐임을 관련 공무원들은 자각하기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서울링, ‘미세먼지 체험 대관람차’ 되나



기 지 수 접
김 현 정
(정책사회부)

20일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역사적인 날이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탑승해도 옆에 아홉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탓에 이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는 걸 아는 시민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기존에 쓰던 비말마스크 대신 KF94마스크를 찾아 쓸 정도로 이날 대기 질은 나빴다.

그간 배출가스 5등급차를 미세먼지 유발 주적으로 삼아왔던 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고 운행 단속을 강화해 왔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사업을 벌여 총 50만7918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서울 하늘을 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의 시간당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에 해당하는 84㎍/㎥를 기록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오세훈 시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 정책 구상 중에 있다고 한다. 시는 오 시장이 15일(현지시간) 런던 하이드파크 일대를 둘러보고 ‘서울링’이 들어설 월드컵공원을 시작으로 서울의 공원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서울 공원 명소화’ 구상을 제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7일 배포했다.

서울링은 쓰레기 매립장을 복원해 만든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공원에 건립되

는 대관람차다. 96m 높이 하늘공원 위에 지름 180m로 만들어져 중심축과 바퀴살을 없앤 고리형 대관람차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하나 서울링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은 요원해 보인다. 과거 큰 실패를 맞본 대규모 토건 사업의 안 좋은 선례(4대강, 세빛둥둥섬 등)를 떠올리며 세금이 살살 녹고 있다고 비판하거나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을 증축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오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서울링 건립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 구상 보다는 유럽 도시들의 맑은 하늘을 보며 서울에 벤치마킹해 도입할 미세먼지 저감책을 모색하는 게 나았을 듯하다. 서울링이 ‘서울 도심 미세먼지 체험 대관람차’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1일 (음 2월 3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복 받는 것보다 복짓는게 먼저. 48년생 우물을 발견했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난감. 60년생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소독은 늘어나 행복. 72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다. 84년생 욕심을 너무 부리니 다들 싫어한다.



37년생 옥은 옥이기에 드러내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귀하니. 49년생 깊은 밤은 아침을 위한 준비. 61년생 고맙다는 말이 듣기 좋다. 73년생 굵은 길 편하지 않는 길을 위기라고 하는데 기회가 되기도. 85년생 새벽길 운전조심.



38년생 나이가 있어도 큰 바다로 나아가는 계기가 온다. 50년생 오늘의 부는 부모님이 복을 지은 덕분이다. 62년생 투기와 투자를 혼동하지 마라. 74년생 만남에 필요이상 의무부여는 상황을 왜곡 시킨다. 86년생 능력에 맞춰서 추진.



39년생 재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51년생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도전. 63년생 원행을 금하고 건강을 살려라. 75년생 바쁘지만 하고 실속은 없는 하루. 87년생 주변과 협력하면 영역시너지가 넓어진다.



40년생 타고난 각자의 그릇이 다르기에 결국 자기 그릇복대로 사는 것이다. 5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64년생 기다림이 기회로 온다. 76년생 부지런히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자. 88년생 인연을 만나니 감사.



41년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방심으로 잃게 된다. 53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니 고단하다. 65년생 무리한 투자보다는 에너지축적의시기. 7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89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말은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각오.



42년생 과거의 지식과 능력으로 현재 타인의 존경을 받는다. 54년생 서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준다. 66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말고 노력. 78년생 초지일관하여 완수. 90년생 팔짱 끼고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43년생 운명을 얘기할 때 숙명을 간과할 수 없다. 55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일이 좋은 일이다. 67년생 우리속담에 노루를 피하니 범이 온다는 말이 있다. 79년생 노력하여 경제적 여건이 호전. 91년생 가시가 없다면 장미가 아니다.



44년생 일의 자척이 느려도 쫓기지 마라. 56년생 기분 좋아지는 내 얼굴에서 운이 상승된다. 68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떠나도 좋다. 80년생 평안하고 소구원만 하기를 기도명상해보라. 92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히.



45년생 불평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57년생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기다림 일수. 69년생 배우자와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81년생 지키고 자제하는 것이 현명. 93년생 도와주는 상대에게 큰 기대보다는.



46년생 젊어서의 노력한 일이 이제는 보답으로 주어진다. 58년생 가족도 자주 만나야 돈독해 진다. 70년생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잘 피게 된다. 82년생 바람이 불어 대니 방황이 시작된다. 94년생 일중독자가 아니지만 하는 일이 즐겁다.



47년생 감나무의 감처럼 풍요롭다. 59년생 커피 값에 집착하려거든 만나지 마라. 71년생 총명하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자의 기준은 일단은 건강하다는 의미. 83년생 갈 길은 먼데. 95년생 허름한 옷을 입었으나 가슴속에는 옥을 품고 있다.

김상회의四季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인도印度의 부자집안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는데이때 이름이 광목이었다. 대문 밖을 나갔는데 어린아이가 엄동설한의 추운 날씨에 입지도 못한 채 헐벗고 굶주린 채로 쓰러져서 동사직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소녀는 재빨리 달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혀주고 동사를 면할 수 있게 했다. 어린아이를 급히 살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진 채 알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광목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마침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땅의 신 지신地神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땅에 구멍을 만들어서 구멍 속에 소녀의 몸을 감출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하여 땅이 감추어준다는 뜻으로 지장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러한 명주부전의 주불主佛인 지장보살은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육도六道(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성불시키고자 하는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다. 지장보살에게는 항상 두 분의 협시協侍가 있는데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다.

도명존자는 중국의 양주땅에 개원사의 승려였는데 대략 13년(778년)2월 8일 누런 옷을 입은 저승사자 3명이 와서 그를 잡아갔다고 한다. 막상 저승에 가서보니 도명을 잡아와야 하는 것을 저승사자가 잘못 잡아온 것이 밝혀져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부터 도명은 지옥을 출입한 승려라고 하여 지장보살을 협시하게 된 연유가 되었다. 무독귀왕은 지장보살이 전생에 인도의 부자집 무남독녀로 있을 때 그녀의 시중을 들었던 인연으로서 협시를 할 수 있게 연결되어 시봉하는 것이다.

지장본원경참조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5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5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3		8			
1			4		
			2	7	9
	4				
8	1		5		4 2
					1
5		2	7		
			3		5
				3	4

			3	9	
4		3		5 9	
	5			7	
	3 8				1
		9		1	
	1			7 6	
3			5		9
		1 7		2	8
		1	2		

정답

7	2	8	9	1	6
9	1	6	1	8	7
8	9	1	7	1	6
8	1	8	2	6	7
2	7	9	9	8	1
1	6	9	1	8	8
6	8	1	8	2	1
9	8	2	8	7	9
1	9	7	6	9	1

8	1	9	2	6	1
8	7	2	8	9	1
9	6	1	7	8	9
6	9	1	8	8	7
2	8	1	9	6	7
9	1	7	9	1	8
7	8	8	1	2	9
1	2	6	9	1	8
1	9	9	6	7	8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만개한 벚꽃 따라 ‘우리 집에도 봄이 났나 봄’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면서 코로나19가 서서히 가고 있다.
겨울동안 불었던 찬바람도 어느새 봄바람으로 바뀌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새로워지는 계절이 왔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이들이나,
새 인테리어로 집안 분위기를 확 변신시켜보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새 봄, 어떻게 변해볼까.
메트로신문이 특집 기사를 통해 제시해본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아이·댕댕이위한 ‘바닥재 지아사랑애’

LX하우시스

우드·스톤 소재 2가지 두께 15가지

LX하우시스의 주거공간용 시트 바닥재 ‘LX Z:IN(LX지인) 바닥재 지아사랑애’는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다.

지난 2016년 출시 이후 미끄럼 방지 성능과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사랑받아온 가운데 2018년 리뉴얼 이후 4년 만인 지난해 하반기 ‘지아사랑애’를 새롭게 단장했다.

리뉴얼한 ‘지아사랑애’는 표면 내구성을 강화하고 디자인 측면에서 우드와 스톤 등 천연 소재 질감을 더욱 자연스럽게 구현했다.

신제품은 바닥재 표면에 다각도의 격자무늬로 울룩불룩한 무늬인



LX지인 바닥재 ‘지아사랑애’ 내추럴 테라조 패턴.

엠보를 구현하는 크로스 텍스처(Cross Texture) 공법을 적용해 미끄럼 방지 성능 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보다 반려동물의 발톱으로 인한 마찰 스크래치 등에도 더욱 강한 내구성을 확보했다.

하이엔드 엔지니어드스톤 ‘오피모 컬렉션’

현대L&C

파손 위험 적고 깨짐 현상 최소화

현대L&C가 하이엔드 엔지니어드스톤 ‘오피모 컬렉션(Opimo Collection·오피모)’을 새롭게 선보였다.

엔지니어드스톤은 순도 100%의 고품질 천연 광물인 석영을 사용해 표면 긁힘과 파손 위험이 적고 천연 석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깨짐이나 색상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피모는 현대L&C의 국내 엔지니어드스톤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브랜드인 기존 ‘칸스톤’의 제품 성능과 장점에 더해 현대L&C가 전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탈리아 기업 브레톤(Breton)의 최신 멀티 압축 설비를 활용해 차별화한 패턴 디자인과



현대L&C의 오피모 컬렉션 ‘피타고니아’.

대형 크기까지 갖춘 게 특징이다.

특히, 새 제품은 전세계 최초로 천연 석 쿼차이트(규암)의 대표적인 특성인 ‘적층 무늬’를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품 크기 역시 일반 규격(3050mmx1400mm) 보다 28% 가량 큰 광폭 규격(3300mmx1650mm)으로 활용도가 높다.

로이유리로 단열 높은 ‘홈씨씨 윈도우’

KCC글라스

겨울철 강풍막는 에어가드 추가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가 선보인 ‘홈씨씨 윈도우’는 높은 단열 성능과 다양한 부자재가 특징이다.

홈씨씨 윈도우에는 창호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유리를 국내 시장 1위인 KCC글라스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한 고단열 특수코팅 ‘로이유리(Low-E)’로 적용했다.

로이유리는 얇은 두께의 금속과 세라믹 박막이 유리 안쪽 면에 여러 층으로 코팅된 것으로, 이를 통해 실내를 밝게 유지하면서도 난방열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

홈씨씨 윈도우에는 겨울철 강풍



KCC글라스의 ‘홈씨씨 윈도우’.

을 막아주는 ‘에어가드’도 추가했다. 에어가드는 창틀 사이 바람의 실내 유입을 막아주는 창호 부자재로 창호 여닫기 구간의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까지 막아준다. 상황에 따라 밀폐력 조절도 가능하며 한 번 설치 후 창호 교체 시까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내구성 둘 다 잡은 ‘나투스진’

동화기업

SEO등급 획득... 찌힘·긁힘 방지

동화기업의 섬유판 강마루 ‘나투스진’은 SEO 등급의 나프(NAF·포름알데히드 무첨가) 보드로 제작하는 친환경 바닥재다. SEO 등급은 1급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건축 자재에 부여하는 최상위 등급이다.

나투스진은 기존 합판 강마루 대비 내구성이 우수해 생활에서 발생하는 찌힘과 긁힘을 방지할 수 있다. 내수성 또한 뛰어나 습기에 의한 마루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 열전도가 빠른 동시에 열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성능도 좋아 난방 후 바닥을 장시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나투스진 텍스처는 기



동화기업의 나투스진 텍스처 레트로 베이지.

능성은 물론 안전함까지 갖춰 찾는 소비자들 많다. 나투스진 텍스처는 미끄럼 저항성이 뛰어나 시공 시 어린이 등 노약자나 반려동물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다. 나투스진 텍스처의 미끄럼 저항 계수(C.S.R)는 0.45로 안전한 보행을 위한 권장값인 0.4 이상을 갖췄다.

보들보들 안락한 소파 ‘오브니·멜로소’



현대리바트 오브니 소파.

현대리바트

등받이 라운드형... 최적 각도 설정

현대리바트가 부클레 패브릭 소파 ‘오브니’와 리클라이너 소파 ‘멜로소’ 등을 선보였다.

‘오브니’는 좌석과 등받이 모두 라운드형으로 디자인해 동그랗고 귀여운 외관이 특징이다. 다리 받침은 둥근 원통형을 사용했다.

내장재도 최대 40kg/m² 고탄성 스펀지를 여러 번 겹쳐 설계했으며 좌석 부분의 깊이가 일반 소파보다 5cm 이상 깊어 안락하다.

겉감은 양털과 같은 느낌의 ‘부클레 원단’과 보들보들한 촉감의 ‘소프트 원단’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부클레(Boucle) 원단은 곱슬이나 매듭이 있는 원단으로 따뜻하고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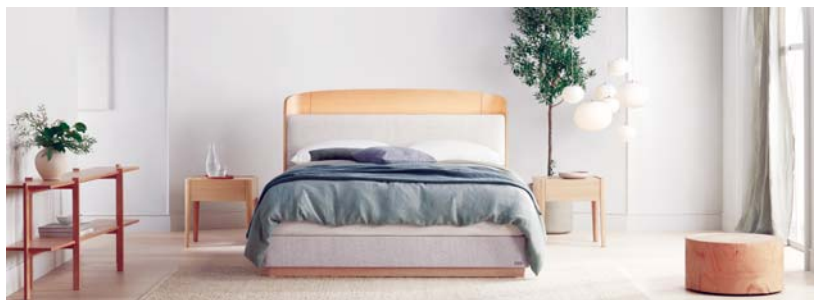
근한 분위기를 연출해 겨울 의류에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 인테리어 소재로도 관심이 높다. 소프트 원단은 만졌을 때 보들보들한 촉감이 특징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오브니가 사용한 패브릭 원단들은 유럽 섬유제품 품질인증기관 오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통과했으며, 발수 기능성도 갖춰 관리가 쉽다.

또 다른 소파 신제품 ‘멜로소’는 신장·체형에 상관없이 사용자 몸에 최적화된 각도 설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헤드레스트(머리받이)는 상하 높이 조절뿐만 아니라 앞뒤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풋레스트(다리받침)가 안쪽으로 한 번 더 접히는 ‘인클라인 기능’을 더했다.

로맨틱한 침실엔 ‘아르노2 오크내추럴’



에이스침대의 ‘아르노2 오크내추럴’

에이스침대

밝기 조절 무드등, 헤드엔 간접 조명

에이스침대가 식물과 함께하는 방을 은은하게 밝혀줄 무드등 침대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이 내장돼 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내추럴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킨다.

또한, 독보적인 기술로 완성한 프리미엄 매트리스는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해 깊이 있는 잠을 선사한다.

대표적인 제품은 밝기 조절 기능을 적용한 무드등이 있어 우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아르노(ARNO-Ⅱ)’다.

반려 식물과 함께 차분하게 꾸며진 침실을 더욱 로맨틱하게 완성하고 싶다면 헤드 부분의 간접 조명을 켜 방안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사물을 직접적으로 비추지 않아 스위치를 껐다 켜다하는 일반 조명은 비교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구현하기에 제격이다.

우아한 곡선 라인으로 마치 백조의 유려한 날개 형상을 떠올리게 하는 헤드보드는 무드등과 함께 공간을 더욱 따뜻한 분위기로 만든다.

천연 무늬목 소재를 사용해 내추럴한 질감을 살리고, 고무와 공법으로 더욱 부드럽게 마감했다. 헤드보드 쿠션은 부드러운 질감의 발수 코팅 원단으로 제작해 실용성을 높인 것은 물론 몸을 기대었을 때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제공한다.

한샘몰 캠페인... 홈리모델링 ‘썸페스타’



한샘의 2023년 스타일패키지 신상품 ‘슬림뉴트럴’ 거실.

한샘

상담·계약·시공·사후관리 원스톱

한샘이 지난달 말 론칭한 ‘한샘몰’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한샘몰 확산 캠페인은 캠페인 영상을 활용한 마케팅과 홈리모델링, 홈퍼니싱 상품을 최저가에 선보이는 ‘썸페스타(SSEM FESTA)’ 프로모션으로 구성됐다.

한샘몰은 상담·계약·시공·사후관리(AS) 등 홈리모델링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1만개 이상의 다양한 홈리모델링 시공 사례를 제공하는 ‘아파트로 찾기’ 기능을 통해 고객이 내 아파트와 같거나 비슷한 평형대와 스타일의 시공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견적 과정도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매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집 도면에 자유롭게 창호·중문·도어·욕실·바닥 등 집의 모든 부분의 공간·스타일을 설정해 가견적을 낼 수 있다.

여기에 내 취향의 시공사례 콘텐츠를 스크랩해 한샘의 홈리모델링 전문가 ‘리하우스 디자이너(RD)’에게 전달하면 견적 신청이 간편하게 끝난다.

견적을 요청받은 RD는 한샘의 3D 설계 프로그램 ‘홈플레이너’로 렌더링된 도면과 세부 견적서를 포함한 ‘엔택트3D 제안서’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 제안서의 내용은 한샘몰의 ‘전자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돼 신뢰도를 높인다.

홈카페 열풍 ‘에스프레카페’ 인기몰이

청호나이스

미온수·얼음·에스프레소 등 올인원

청호나이스의 ‘에스프레카페’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16만대 이상 판매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다.

에스프레카페는 2014년 당시 얼음 나오는 커피머신으로 첫 선을 보인 이후 2021년에 지금 이름을 바꿨다. 가로 29cm 크기에 정수, 냉수, 온수, 미온수와 얼음을 함께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에스프레소 뿐만 아니라 티 추출도 가능하다.

특히 커피가 가장 맛있는 최적의 비율인 90°C의 물과 15bar 이상의 압력 그리고 청호나이스만의 특허 압착 방식으로 원두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에스프레카페에는 커피 맛을 살리기 위해 3중겹 구조로 제작한 캡슐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캡슐 내 원두분말의 산화를 방지했다.

여기에 세계 3대 커피 가운데 커피맛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100%’ 커피



청호나이스의 ‘에스프레카페’.

캡슐도 라인업으로 갖추고 있다.

청호나이스의 블루마운틴 커피는 커피 원산지 자메이카와 제조사 ‘Gruppo Gimoka(지모카)’로부터 자메이카 100% 정품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고급스럽게 제작한 조작부는 디자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까지 고려한 직관적인 아이콘을 적용했다. 용도를 고려한 LED바는 예열시간과 커피 추출 상태를 알려줘 더욱 편리하다.

아울러 모든 불이 꺼진 주방을 위해 적용한 감각적인 무드등은 차분한 은은하게 비추며 분위기를 연출한다.



[금융]
저축은행
금리인상에
수익성개선빨간불
08

[라이프]
“라운딩 시즌
보양식·주안상으로
‘골퍼 입맛’ 잡아라”
L1



집안 공기 맞춤 관리 ‘노블 공기청정기’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코웨이

필터에 4D 입체필터 구조 적용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는 코웨이의 30년에 걸친 혁신적인 필터 기술력을 집약한 ‘에어클린항균 필터 시스템’과 ‘에어매칭 필터’를 적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에어클린항균 필터시스템은 특허 받은 4D 입체필터 구조로 4면에 단계별 필터(4D프리필터, 더블에어매칭필터·멀티큐브탈취필터, 에어클린항균필터)를 장착해 더욱 뛰어난 청정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머리카락 굵기인 1만분의 1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필터 내에 세균·곰팡이 증식 억제 기능을 적용해 공기 중 부

유세균과 바이러스까지 감소시킨다. 에어매칭 필터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공기 속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축적한 약 1960억개의 공기질 연구를 기반으로 상황별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특화된 필터다.

이는 알러겐필터, 이중탈취필터, 미세먼지집중필터, 팻필터, 매연필터, 새집필터 등 6가지로 집안 공기 관리에 맞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냄새와 털 날림이 걱정된다면 팻필터를 장착해 사용하면 된다.

또한 집먼지진드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알러겐 필터 등 실내 상황이나 계절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필터를 선택해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다.

360도 사각지대 없는 ‘올클린 공기청정기’

SK매직

극초미세먼지 99.99% 제거

SK매직이 출시한 ‘올클린 공기청정기’는 원통형 구조로 설계해 360도 전 방향과 동시에 바닥을 통해 오염된 공기를 사각지대없이 빠르게 흡입하고 깨끗한 바람을 강력하게 내뿜는 것이 특징이다.

또 먼지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팬과 토출부는 손으로 쉽게 분리해 세척이 가능하도록 ‘분리형 워셔블(Washable)’ 구조로 설계했다.

필터는 차별화한 8단계 ‘올인원(All-in-One) 케어 필터’를 적용해 0.01 μ m 크기의 극초미세먼지까지 99.99% 제거한다. 아토피,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과 반려동물 냄새 등 각종 생활 냄새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항균,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성능까지 갖췄다.

‘AI 자율 청정 시스템’을 적용해 사용자가 GPS기능이 설정된 제품 반경 500m 이내 접근하면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가동되며, 실내 공기



SK매직의 올클린 공기청정기.

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항상 맑고 쾌적한 공기를 제공한다.

또, 실내·외 공기질 관련 정보와 주요오염 패턴 등을 자체 수집·분석해 공기 오염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스스로 관리한다.

4단계 색상의 LED 라이트와 수치화된 표시로 공기 상태를 실시간 안내한다. 조작이 쉽고 간편하도록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몸에 유익한 미네랄 지키는 ‘슈퍼쿨링 더 뉴’

교원 웰스

6단계 필터링... 3중 위생 케어

교원 웰스(Wells)는 자사 정수기 대표 모델인 슈퍼쿨링 시리즈의 2023년형 신제품 ‘웰스 정수기 슈퍼쿨링 더 뉴(The New)’를 새로 출시했다.

‘슈퍼쿨링 The New’는 몸에 유익한 미네랄 함유량을 보존해주는 6단계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해 ‘미네랄이 살아있는 건강한 물맛’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비결은 교원 웰스만의 ‘웰스 카본 필터’와 ‘네오나노클린플러스 필터’에 있다. 2개의 필터가 수은, 납, 구리 등 6종의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비롯해 노로바이러스, 황색포도상구균 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99.9% 제거한다. 동시에 물 속 미네랄은 지키고 정수한 물을 몸속의 피와 유사한 pH 농도로 맞춰 음용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약알칼리 물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해수 유료 살균 ▲UV 코크 살균 ▲12개월 코크 팁(Tip)



교원 웰스 ‘웰스 정수기 슈퍼쿨링 The New’.

교체 등 ‘3중 위생 케어 시스템’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위생과 정수 품질을 확보했다.

교원 웰스의 정수 품질은 지난해 한국국제소물리에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6회 정수기·생수 물맛 품평회’에서 정수기 부문 상위 등급인 ‘골드’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체 온도와 유사한 수온으로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온수 모드’를 업계에서 유일하게 적용했다.

영양과괴 최소화한 착즙 ‘H400’

휴롬

‘2세대 멀티 스크루’ 탑재

휴롬이 선보인 착즙기 ‘H400’이 tvN 예능 프로그램 ‘서진이네’에 등장해 화제다.

서진이네는 배우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 BTS 뷔 등이 멕시코 바칼라르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17일에 방영한 ‘서진이네’ 4화에선 사장 역할을 하는 이서진이 신메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롬 착즙기 H400으로 과일을 착즙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H400 착즙기는 휴롬의 최신 기술력인 ‘2세대 멀티 스크루’를 탑재해 파이토케미컬과 효소, 천연 비타민 등의 영양 파괴를 최소화한 저속·저온 착즙 방식으로 더 맑고 진한 착즙 주스를 경험할 수 있다. 주스 외에도 넷밀크, 컵데일, 아이스크림 등 하나의 멀티 스크루로 다양한 디저트 종류들을 만들 수 있도록 휴롬의 독보적 착즙기술을 적용했다.



tvN ‘서진이네’에 등장하는 휴롬 착즙기 H400.

작동부터 세척까지 사용 과정 전반에서 편의성도 높였다. 165mm의 메가 호퍼로 재료를 통째로 넣을 수 있고, 투입구에 재료를 넣으면 커팅 날개가 자동으로 절삭해줘 따로 재료를 손질할 필요가 없다. 제품 앞면의 주스포켓을 통해 주스가 차오르는 모습으로 착즙량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척 부품수도 드럼, 멀티스크루 상하부 등 단 3가지로 줄였다.

